

방문규 회장 “혁신성장·소부장 지원 강화” 8

‘脫LCD’ LG화학, 편광판 라인 가동 중단 9

〈김기남 부회장·김현석 사장·고동진 사장〉

‘안정 속 변화’ 택한 이재용… ‘톱3’ 유지 속 50代 발탁

삼성전자 사장단 정기인사

이인용 고문 대외업무 사장 복귀
IM부문서 무선사업부 분리
스마트폰 수장에 52세 노태문



케이션 팀장을 지낸 이인용 사회공헌업무 총괄 고문은 대외업무담당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복귀했다.

이번 사장단 인사에선 부사장 4명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IM부문 네트워크사업부장 전경훈 부사장이 사장으로, 종합기술원 황성우 부원장이 원장으로,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최윤희 부사장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 SDS 사업운영총괄 박학규 부사장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에 올랐다.

전 사장은 포항공대 전자공학 교수 출신으로 삼성전자 DMC연구소 차세대연구팀장, 네트워크사업부 개발팀장, 네트워크사업부장을 역임하면서 5G(5세대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주도한 통신 전문가다. 황 사장은 2017년 11월부터 종합기술원 부원장을 맡아 오면서 미래 신기술 발굴 및 전자 계열사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 사장은 삼성전자 수원 경리팀, 영국 법인 관리 담당, 구주총괄 경영지원팀장, 사업지원팀 담당 임원,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등을 거친 재무관리 전문가다. 박 사장 역시 삼성전자 해외관리그룹, 멕시코법인 관리 담당, VD사업부 지원그룹장,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삼성SDS 사업운영총괄 등을 거친 재무통이다. 송영록 기자 syr@



“열정 기억하겠습니다” 재계 조문 행렬

이재용(왼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관련기사 21면 신태현 기자 holjjak@

산업銀 임추위 사외이사 모두 ‘親文라인’

정기권력 금융지배

국책은행 코드인사 논란

최근 IBK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임명되면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기관장이 판피아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이들 기관장을 포함해 사외이사과 감사 역시 현 정권과 밀접한 인사들이 내정되면서 권력에 연줄이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 만형 격인 산업은행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마저 친(親)정권 인사로 채워지면서 이사회 독립성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1일 ‘산업은행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추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4명 모두 친정부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임추위는 기관장과 경영진을 견제하는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추위가 친정권 인사로 구성되면 국책은행이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 임원추천위원회 외부 구성원 주요경력

성명	직위	주요경력
*최방길	사외이사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양재열 (前)	사외이사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 자문회의 위원
김정식	사외이사	기재부 자체평가위원장,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김남준	사외이사	현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이윤	사외이사	인천산업단지포럼 단장
정혜영	사외이사	경희대학교 기획조정실 실장
서철환	감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

※출처: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실

위원장은 文대통령 경희대 동문 정부 정책방향 따라 휘둘릴 수도 이사회 독립성 훼손 우려 제기돼

현재 산업은행 임추위 위원장은 최방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맡고 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학과 동문이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강릉고 선배로 알려졌다.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남준 법무부 법무감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문 정부의 검

찰개혁안을 주도해온 핵심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전정배 법무장관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2010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직도 맡고 있다. 이윤 사외이사는 참여정부 시절 인천산업단지 포럼 단장을 맡았다. 김정식 사외이사는 현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이며,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장을 거쳤다. 2018년 임추위 위원장을 맡았던 양재열 사외이사는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이다. 지난해 임추위에 포함됐던 또 다른 사외이사 정혜영 씨는 경희대학교 기획조정실 실장을 거쳐 경희대학교 재정부총장을 지냈다.

현재 산업은행 감사는 서철환 전 대통령 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 행정체제개편국 국장이다. 서 국장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도 맡았다. 그는 재작년 2월 금융위원회 임원으로 감사 활동을 시작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정의선 ‘V자 반등’ 이뤘다

“현대차 매출 사상 첫 100兆 달성·기아차 영업익 70% 개선”

“2019년을 V자 반등의 원년으로 삼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내뱉던 공약이 실현되며 빛을 발했다.

현대차 매출이 사상 첫 100조 원대에 올라선 것은 물론, 기아차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0% 가까이 개선됐다.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저점을 통과한 이후 개선세가 뚜렷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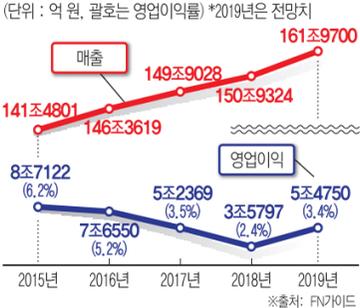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증권사가 내다본 실적 전망 평균치를 살펴보면 현대차 작년 매출은 104조 500억 원, 영업이익은 3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전년 대비 8.3%와 45% 증가한 수준이다.

기아차 역시 지난해 매출 56조 9000억 원, 영업이익 2조 원대 회복이 점쳐진다. 전년보다 매출이 5%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69%나 증가했다. 2018년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하반기 환입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세가 더 뚜렷했다.

양사의 통합 매출은 사상 최대치인 16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도 2018년 저점(2.4%)을 통과한 이후 3.4% 수준으로 개

현대기아차 연간 실적 추이



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국내외 미국시장에서 대형 SUV 효과를 톡톡히 누렸고, 상대적으로 마진이 큰 고가의 준대형차가 시장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호적 환율도 힘을 보탤다. 지난해 초 1122원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들어 1202원까지 상승하면서 수출에 힘을 보탤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현대차가 잇달아 신차를 내놓으면서 실적 개선 효과를 냈다”며 “올해는 기아차가 연이어 신차를 준비하는 만큼, 신차 효과에 따른 영업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2일 오후 2시와 4시에 지난해 연간 실적 콘퍼런스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설 코앞인데… ‘우한 폐렴’ 국내 첫 확진

중국인 여성 공황서 격리조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중국 우한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확진자는 35세 여성(중국 우한시 거주)으로,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가던 중이었다.

2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검역소는 19일 우한시 입국자를 검역

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를 검역조사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했다. 질병은 감염증 검사를 실시해 이 환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확진자를 제외하고 질병은 조사대상 유증상자 3명을 격리, 14명을 능동감시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앞서) 격

리 해제된 4명 중 3명은 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며 “인플루엔자로 인한 유증상자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확진자와 관련해선 5명의 동행자, 근접 좌석에 앉았던 승객, 담당 승무원 등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국외에서 이날까지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중국 201명(우한시 198명, 베이징 2명, 선전 1명), 태국 2명, 일본 1명 등 204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가족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은 없는 상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3인 체제'로 불확실성 돌파... 50代 사장들엔 변화 주문

삼성전자가 20일 발표한 2020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는 '안정'과 '변화' 속에 '소통 강화' 기조가 읽힌 인사였다.

핵심 사업부문인 DS(디바이스솔루션)·CE(소비자가전)·IM(IT·모바일)의 3인 부문장을 유임하며 '큰 틀'은 유지하되, IM 부문 무선사업부를 따로 떼어내 50대 초반의 젊은 사장에게 맡기는 등 '안정 속 변화'를 꾀했다.

노태문 사장은 2018년 부사장에 오른 뒤 1년 만인 2019년 정기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이번에는 사장 승진 1년 만에 무선사업부장이 되며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더욱 유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김기남·김현석·고동진 대표이사는 부문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전자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한편 후진 양성에 더욱 전념하길 기대한다"며 "갤럭시 신화를 일군 주역인 52세 젊은 리더인 노 사장은 참신한 전략을 제시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회사 핵심 경영진이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표이사 교체 없이 큰 틀에서는 안정을 지

SAMSUNG								
	이름	노태문	전경훈	황성우	최윤호	박학규	경계현	노희찬
	직책	IM부문 무선사업부장(사장)	IM부문 네트워크사업부장(사장)	중합기술원장(사장)	경영지원실장(사장)	DS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	삼성전기 사장	에스원 사장
	나이	52세	58세	58세	57세	57세	57세	58세
학력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 박사	미국 미시간대 전자공학 박사	미국 프린스턴대 전기공학 박사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KAIST 경영과학 석사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박사	연세대 경제학 학사	

'갤럭시신화' 노태문, 초고속 승진 무선사업부 지휘 '50대 재무 전문가' 최윤호·박학규 경영지원실장에 5G 상용화 선제 대응 전경훈 사장 승진 '성과주의' 부사장급 이하 인사서도 젊은 인재 대거 발탁 전망

향한다는 이 부회장의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두 명의 경영지원실장을 모두 교체한 것은 내부 안정 및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인사라는 평가다.

기존 노희찬 사장이 맡던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은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최윤호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며 맡게 됐

다. DS부문 경영지원실장 역시 기존 강봉용 부사장에서 박학규 사장으로 교체됐다. 박 사장은 삼성SDS 사업운영총괄 부사장에서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으로 승진했다.

새로 임명된 각 경영지원실장은 모두 50대 재무 전문가로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조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인사 원칙인 성과주의도 읽힌다.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한 IM부문 네트워크사업부장 전경훈 부사장은 작년 말 네트워크사업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일 발표된 부사장급 이하 인사에서는 젊은 임원들의 대응이 예상된다.

특히 무선사업부에선 50대 초반으로 수장에 오른 노태문 사장과 호흡을 맞출 젊은 인재가 대거 발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등 전자계열사 인사에서도 성과주의와 젊은 인재 등용 기조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삼성전자와 함께 사장단 인사를 단행한 삼성전기도 대표이사를 5년

만에 교체하며 분위기 쇄신을 꾀했다.

1963년생인 경계현 신임 사장은 서울대 제어계측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설계팀장, 플래시 개발실장, 솔루션 개발실장을 역임한 반도체 설계 전문가다. 삼성전기는 기술혁신을 리딩하는 회사로 새롭게 도약·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5년간 삼성전기를 이끌어 온 이윤태 사장은 물러나게 됐다.

에스원도 이날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노희찬 삼성전자 사장을 내정했다. 노 신임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지원팀장, 삼성디스플레이 경영지원실장을 거쳐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맡아온 재무 전문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사장단 인사는 큰 틀에서는 안정과 내실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부사장 이하 임원인사와 향후 조직개편의 폭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이인용 사장 컴백... 무게 실리는 '준법경영'

삼성전자가 20일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며 이어질 후속 조직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주문한 준법감시 제도와 관련 준법을 강화하는 차원의 조직 신설·확대가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이하 2020년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도 조만간 마무리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장단 인사에서 사회공헌업무총괄 이인용(사진) 고문을 CR

사회공헌총괄 2년여 만에 대외업무 사장으로 복귀 준법감시위 사내 위원 겸임 늦어도 2월 전 조직 출범 전망

(Corporate Relations)담당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 고문은 2017년 11월부터 사회공헌 업무를 총괄한 지 2년여 만에 사장으로 복귀했다.

이 사장은 방승인 출신으로 삼성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과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을 역임했다. 삼성전자는 이 사장에게 폭넓은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CR담당으로서 대내외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장은 준법감시위원회 사내 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주문에 따라 '내부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외부인사 6명, 내부인



사 1명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김지형(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김 전 대법관은 진보성

향 법조인으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조정 위원장을 맡아 11년 동안 이어진 백혈병 논란을 2018년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준법감시위원회의 기본적인 구상이 마무리된 만큼 삼성전자는 이 조직을 지원하

는 사무국 신설, 조직 구성·확대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늦어도 2월 전에는 조직 출범이 이뤄져야 변화와 쇄신을 이어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월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이 사장을 CR 담당에 임명, 준법감시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는 한편, 삼성전자의 대외업무를 전체적으로 쇄신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준법경영은 법원의 주문이자 삼성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며 "이번 인사와 조직개편으로 삼성이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h point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이 아이스팩 기부를 북극곰이 고마워합니다

현대홈쇼핑은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필요한 곳에 다양하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친환경 캠페인, Green Friends

현대홈쇼핑은 매달 4,000분께 아이스팩을 기부 받아 필요한 곳에 나누어 드리고, 참여 고객께는 H.Point를 선물로 드리는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는 전자영수증 발행 및 다양한 친환경 사업 지원을 통해 푸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맛대로 '국책銀 인사' 毒이 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한국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시 노동조합의 '출근 저지'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출근 저지의 명분은 주로 '낙하산 인사'에 있었다. 산업은행은 현 이동걸 회장과 전임 동명이인 이동걸 회장을 제외하고 민유성, 강만수, 홍기택 등 전임 회장 모두가 출근을 저지당한 바 있다.

수은도 이덕훈 전 행장과 은성수 전 행장, 방문규 현 행장까지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 출근이 막혔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금까지(20일 기준)도 출근이 막힌 상황이다. '출근 저지'는 금융공기업 중에선 서근우 전 신용보증기금 선임 때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다.

◇국책은행에서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 = 금융공기업 중에서 유독 국책은행이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이들 기관의 '분류법'이 하나의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분류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2년 전 산은과 수은을 조건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분류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이들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으로 격상하지 않았다.

관리의 단계를 높이지 않은 것은 해당 기관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구조조정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관이기에 외부 입김이 미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등의 의무를 제외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보다는 자율이 보장된다.

국책은행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운영을 규정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강제해 아니다. 임추위 구성이 공공기관법에 적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책은행이 임



빠른 의사결정·자율성 보장 위해 공공기관법 적용서 제외했는데 임추위 구성 강제할 규정 없어 행장 선임 '낙하산 논란'만 반복

추위 구성을 하려면 내규를 따로 작성해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기관이 수은이다. 수은은 원하면 임추위를 열어 CEO를 선임할 수 있다. 반면 산은과 수은은 임추위를 구성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자율성 보장?... 오히려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하는 모순 낳아 = 문제는 '기타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임추위 구성을 강제하지 않는 건 엄밀히 말해 CEO 선임을 자유롭게 하라는 의미다. 사장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민간기업 같은 자유가 보장된 측면이다. 하지만 늘 정부가 인사권을 발휘한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법의 적용을 배제했는데 오히려 '정부의 손'을 거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감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내 설립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20일 작성한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기관장 선임과 관련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원론적인 권고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별다른 대안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의 입에서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라는 퇴행적인 발언만 나온 상황이다.

그렇다고 기관의 성격을 바꾸는 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는 "관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최대한 정부에서 멀어지는 게 좋다. 행장 선임도 자율로 맡기고 가능하다면 정부 지분도 털어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도 "현재 공기업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할 수 있는 소양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신현오 수은 노조위원장은 "임추위 부분에 대해서만 기타공공기관을 적용하는 게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나경연 기자 contest@

김형선 기업銀 노조위원장

“前 정권의 ‘낙하산’ 욕하더니 3대 국책은행장 모두 관피아”

“文정부, 내로남불의 전형 낙하산 근절 협약 지켜야”



“야당일 때는 독극물이라 욕하던 낙하산 인사가 이번 정권에서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김형선(사진)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2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형선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관치금융 폐해를 지적하며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더니 지금은 3대 국책은행장을 모두 관피아로 임명했다”면서 “정와대가 낙하산의 기준을 바꾼 것인데, 내로남불의 전형이다”고 했다.

김형선 위원장은 이달 임명된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업은행장을 받아들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실무 능력 부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모든 운영 방식이 시중은행과 비슷해 공공기관과 운영체계가 전혀 다르다. 특히, 1만4000명의 직원이 일하는 조직인데 윤 전 수석은 은행 영업 경험이 없을 뿐더러 이렇게 큰 조직을 이끌어 본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관료 출신은 조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만 수많은 시간을 들일 것이 분명인데, 내부 인사는 이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은행이란 곳이 노사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윤 전 수석이 기관장으로 오게 되면 노사관계 측면에서 분명히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투데이가 보도한 문 대통령의 정책협약 파기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

장은 대통령 후보들이 정책협약을 가법계 여기고 당선을 위한 도구로만 간주하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이 금융노조를 정치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협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데, 문 대통령은 낙하산 근절과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정책협약에 언급한 내용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이 낙하산 인사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은행은 아직 도입이 안됐지만, 금융공기업 내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고 그곳에서 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임추위를 구성하는 비상임이사들도 전부 낙하산 인사로 구성돼 있다. 만약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근로자를 대표한 노동이사가 낙하산 인사들을 견제해 친정부 인사들이 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곽진산 기자 jinsan@
사진=고이관 기자 photoeran@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한 끼의 완성
베콤씨[®] 정



다주택자, 38억 강남 집 6월까지 팔면 '9억 절세'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 양도세·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전세대출 규제에 '반전세' 늘 듯... 임대소득세 부담 고려를

서울 강남 등에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집을 팔 경우 최대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 수억 원의 실질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집값 상승률이 높아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약속했기 때문이다.

20일 국세청과 세무업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여년 전 10억 원에 산 강남 아파트를 6월 말까지 38억 원에 팔 경우 부과되는 세액(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은 8억 원대에 이른다. 이는 7월 이후 매각할 때 내야 하는 17억 원대보다 무려 9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일례로 서울 강남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1996년에 산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

스티지, 2013년에 취득한 서울 용산 주택, 2017년에 산 분당 판교 주택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모두 3채를 보유하고 있다. 만일 A 씨가 1996년 취득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를 올해 6월 말까지 양도가 38억 원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7억82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취득가(필요경비 등 포함 1억1532만 원)를 뺀 양도차익이 27억8468만 원인데,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대상·8억3540만4000원)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19억4927만6000원)에 양도소득세율 42%를 적용한 결과다. 또 여기에 중부

세(5680만 원)를 더하면 세금 총액은 8억 3904만4690원이다. 하지만 7월 이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최대 3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율도 6월 말까지는 조정대상지역임에도 한 시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42%)이 적용됐지만, 7월 이후에는 종과세율(62%=42+20%)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같은 양도가로 집을 팔더라도 거의 두 배인 16억8955만1600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5680만 원)까지 포함한 총세액은 17억 4635만370원이다.

결과적으로 6월 30일과 7월 1일 불과 하루 차이로도 양도소득세 차이가 무려 9억 730만5680원에 이르는 셈이다.

반면 이달 20일 시행된 전세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반전세' (전세 보증금 + 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은 임대소득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에게 결국 임대소득세까지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설 자금 방출 설을 닮아 앞둔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시중 은행에 공급할 설 명절 자금 방출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에너지 기술개발에 9163억 투입

전년 대비 19.1% ↑ ... 수소 등 에너지전환 집중 투자

정부가 올해 에너지 기술 개발에 9163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보다 19.1%나 늘어난 액수다. 이 예산은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21일부터 89개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의 특징은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를 뒷받침할 16대 중점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점이다. 2021억 원을 신규 과제에 배정하고 이 중 95.4%인 1928억 원을 여기에 투자한다.

분야별로 △수소 431억 원 △원자력 270억 원 △산성효율 176억 원 △에너지안전 165억 원 △에너지저장 143억 원 △수소효율 137억 원 △태양광 110억 원 △풍력 93억 원 등이

다.

또 기술 융복합에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는 '대형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진행되는 대형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에너지다소비 업종별 맞춤형 스마트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개발 △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건물 외장재·설비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성능평가 체계 등 16개다.

26개 과제를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해 기획부터 평가까지 기술개발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신규 과제 중 50개는 기술 수요자인 에너지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참여하는 수요 연계형 기술개발로 기획했다.

또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벤처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을 지원한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연비 낮은 전기차 보조금 깎인다

승용차 151만·버스 1058만 원 ↓ ...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연비가 낮고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승용차는 최대 151만 원, 버스는 최대 1058만 원 깎인다.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자 집중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최고 금액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조금 산정체계가 연비와 주행거리 중심으로 개편돼 연비가 낮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축소된다. 차종별 최저금액을 보면, 승용차는 756만 원에서 605만 원으로, 버스는 7400만 원에서 6342만 원으로, 이륜차

(경형)는 223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최고·최저 금액 간 차등 폭은 승용차가 144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버스는 2600만 원에서 3658만 원으로, 이륜차는 7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된다.

승용차와 이륜차는 최고 금액도 각각 900만 원에서 820만 원으로, 23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축소된다. 기존 최고 금액은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를 구매할 때에만 적용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을 약용한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 전기 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차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이 신설된다.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기재부와 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수를 지난해 6만 대에서 9만4000대로 대폭 늘린다. 구매보조금 최고 금액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1820만 원, 수소자동차 425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국민취업지원제 도입 되면 연간 235만 명 혜택 고용안전망 구축”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 지원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연내 도입되면 2022년까지 연간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대 효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고용부는 저소득 미취업 구직자에 진로상담, 직원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는 기존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올해 국

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고 2022년까지 지원 규모를 6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경우 2022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2차 안전망·60만 명)와 실업급여(1차 안전망·140만 명+α), 재정지원 직접일자리(3차 안전망·35만 명+α)를 합해 연간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또 2022년까지 고용서비스참여자의 취업률이 16.6% 포인트(P) 상승하고, 빈곤율이 2019년 23.2%에서 2020년 20.8%로 줄어 빈곤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분석했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올해 예산으로 2771억 원(지원규모 20만 명)을 편성했지만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 제도를 시행하려면 20대 국회임기 내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 입법지원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딸기·포도 '수출 스타상품' 지정... “1억 달러 달성”

시장 다변화... 마케팅 지원 강화

정부가 최근 수출 호조세를 보이는 딸기와 포도를 올해 스타상품으로 지정하고 1억 달러 수출 달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유통망·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딸기·포도 중점 육성계획을 담은 '2020년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선 수출은 품목별

로 고르게 증가해 전년보다 8.3% 증가한 13억8000만 달러를 수출했다"며 "인삼 2억 달러를 비롯해 김치와 쌀 가공식품도 모두 1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딸기 수출액은 전년보다 14.7% 늘어난 5450만 달러, 포도는 무려 64.4%가 증가한 235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딸기와 포도도 1억 달러 수출 반열에 올릴 계획이다. 재배기술 확립과 신규 시장 개척 등 지원을 통해 딸기는 3년, 포도는 5년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딸기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개선과 국가별 마케팅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포도는 저가-저품질 수출을 방지하고, 국가별 품질 수요에 맞춘 생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국·베트남 등 주력시장 수요기반 확대를 추진한다.

신북방에서는 러시아를 적극 공략하고 중앙아시아에서는 권역별로 수출업체 공동 운송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등 물류 지원을 강화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문 대통령 “경제 반등 징후 보여… 규제 혁신 속도내야”

정 총리와 외동·수보회의 주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총리와 오찬을 겸한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와대 주례회동은 정 총리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규제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 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

경제활력 제고 방안 의견 나눠

정 총리 “신산업 갈등 해결 위해 경제·노동·정계와 폭넓은 대화”

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규제 혁신이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하다”면서 “적극행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가 17일로 시행 1년이 된 점을 상기하며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삼고 △획기적 규제 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경제 총리)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갈등 해소와 당·정·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통합 총리)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혁신 총리)을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 총리가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대화’(가칭)를 운영해 경제계·노동계·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총리가 목요대화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운영해 달라”면서 “목요대화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오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며 “경제의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마친 뒤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 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며 “올해를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K를 세계 브랜드로 도약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 연간 5조 원을 달성하는 등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내놴다.

정일환 기자 whan@

한국·새보수 ‘통합열차’ 달리나

새보수 ‘양당협의체’ 최후통첩 만나질 만에 한국당 수용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보수 통합 논의가 진통에서 벗어나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새보수당이 20일 한국당에 ‘양당 협의체’ 수용의 최후통첩을 날리자 한국당이 만나질 만에 수용 의지를 밝히면서다. 한국당은 설 연휴 전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회동도 추진키로 했다.

박원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도 양당 간 협의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밝혔다. 박 총장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기라든지, 협의체를 공개할지 비공개로 할지 등의 부분에 대해선 양당 간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율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회견에 함께 자리한 김상훈·이양수 의원을 소개하며 “새보수당과의 협의를 양당 간 진행한다고 하면 두 분 중 한 분이 대표로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에 “오늘까지 ‘양당협의체’를 받지 않으면 각자의 길을 가겠다”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하 책임대표는 “보수재건

3원칙 중 ‘헌 집을 헐고 새집을 짓자’는 뜻은 새로운 당에서 모인다는 것”이라며 “지금 한국당은 신설 합당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한국당이 먼저 통합열차에서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이 새보수당의 요구에 응하면서 그간 베껴왔던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가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 통합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의체를 만들면 혁신통합위원회(혁통위) 발언권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정당끼리 해야 할 논의가 있다”면서 “혁통위도 이해해주는 분위기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황교안 대표는 통합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같이 걷어내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새보수당 요구를 받아들인 배경을 밝혔다. 또 황 대표와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이 설 연휴 전 만날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도 실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안철수 첫 행보는 ‘호남 다독이기’

현충원서 DJ 가장 먼저 찾아… 5·18 민주묘지 참배

“실용 정당 만들기 온 힘”

안철수(사진)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귀국 후 첫 행선지로 호남을 택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켰던 호남에서 새 출발의 의지를 다지는 행보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안 전 의원은 20일 정계복귀 첫 행보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곧바로 광주로 가서 국립 5·18 민주묘역을 방문해 헌화·참배했다.

안 전 의원이 광주를 방문한 것은 2018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첫 행선지를 호남으로 정한 것에는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됐던 호남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안 전 의원의 정치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안 전 의원은 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먼저 찾았다. 묘지 곳곳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영호남 화합,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이 먼저 손



을 내미는 것이 역사물 줄기의 옳은 길이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귀국길에서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

안 전 의원은 이날 행보에서 향후 정치적 노선의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용적 정당 역시 호남을 기반으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 내의 많은 분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며 “동의를 구하고 함께 결정하겠다.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안 전 의원이 ‘실용적 중도 정당’을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은 일단 ‘독자노선’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보수통합·호남신당 등 정계개편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전략적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종현 기자 lamuziq@

KB금융그룹 |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신원부부, 노년부부, 우리아이, 직장인,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차내보험, KB주택보험, KB중신보험

그랑드트릭스의 일요일 오후 조르주 피에르 쇠라

국민, 좋아요 ♥
보험, 좋아요 ♥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빠짐없이 챙겨드릴게요!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KB손해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 자녀보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 건강보험	소중한 내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 간편청구서비스	KB생명보험 나의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 종신보험
------------------------------------------	-------------------------------	---------------------------------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대상 금융상품의 예약금금액(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또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계약이 무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보험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계약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문의 상담전화 186499(2019.07.08)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생명보험문의 상담전화 2019-021950 (2019-07-09) *주소: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금융타워 www.kbfi.co.kr *고객콜센터:1588-9922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기후변화 충돌 다보스서 재회

50주년 WEF 관전 포인트
53개국 정상 포함 3000명 참석
16세 스웨덴 환경운동가 툰베리
파리조약 탈퇴 트럼프와 2R 예고

올해로 개최 50주년을 맞이한 세계경제포럼(WEF)이 21일(현지시간)부터 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다. 19일 CNN 등에 따르면 일명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불리는 WEF는 매년 1월 정치, 경제, 국제기구 등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을 다룬다. 올해 주제는 '회합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로 선정됐다. 노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국가 원수 53명을 포함해 3000여 명이 참석한다.

나흘간 진행되는 올해 포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글로벌 경제 성장, 기후 변화 대응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를 두고 서로 대적점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16세의 어린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만남이 벌써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툰베리는 이번 포럼에서 개막일인 21일 '공동의 미래를 향한 지속 가능한 방향 구축'과 '기후 대재앙 방지' 세션의 연사로 참여,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미국 연방 정부의 '넷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으로 포럼에 불참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21~22일 이틀간 다보스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두 양측의 만남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 환경 운동의 아이콘인 툰베리는 국제적 운동으로 확산된 '기후 파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2018년 8월 툰베리는 정치권과 기성세대에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학교를 빠지고, 스톡홀름의 의회 앞에서 시위를 했다. 이는 대중에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지난해 9월 전 세계적으로 열린 기후 변화 시위에 400만 명의 시민이 모인 원동력이 됐다.

기후변화가 중국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다. 작년 9월에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툰베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차갑게 쏘아보는 사진이 포착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사진은 두 사람의 사이를 한 발자국 더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툰베리는 밝고 멋진 미래를 고대하는 매우 행복한 어린 소녀처럼 보였다"며 조롱하듯 글을 올린 것이다. 이에 툰베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 소개를 '밝고 멋진 미래를 고대하는 매우 행복한 어린 소녀'로 바꿔 간접적으로 응수했다. 트럼프의 공격은 그 이후로도 끝나지 않았다. 그는 툰베리가 지난해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자 트위터에 "아주 웃긴다"며 "그레타는 자신의 분노 조절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나서 친구랑 좋은 옛날 영화를 보러 가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그레타 역시 작년 말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됐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편 CNN은 "이번 WEF 회의의 주제가 '회합과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인 만큼 참석자들은 기후 변화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감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한 견해를 두고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작년 11월 탈퇴 통보를 유엔에 전달,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절차에 돌입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억만장자 2153명의 富가 46억명 총 재산보다 많다”

옥스팜 ‘富의 불평등’ 보고서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일명 '다보스포럼' 개막을 앞두고 부(富)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옥스팜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억만장자 2153명이 전 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46억 명의 총 재산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을 줄일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고 미국 CNBC방송이 보도했다.

옥스팜은 매년 세계 정부와 기업 지도자들이 총집결하는 다보스포럼에 맞춰 '부의 불평등' 보고서를 내놓는다.

보고서는 포브스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19년 억만장자 순위'를 인용해 "세계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46억 명이 8조2000억 달러(약 9514조 원)의 부를

갖고 있지만 포브스 순위에 들어가는 억만장자의 총재산은 이보다 많은 8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또 억만장자 수는 2008년의 1125명에서 지난해 2153명으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현재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이조스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약 1164억 달러 재산으로 세계 1위 부호다. 2위는 세계 최대 럭셔리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1160억 달러) 회장이다.

보고서는 “어떤 사람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가 세워진 이후 매일 1만 달러를 저축했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은 여전히 글로벌 상위 5명 억만장자의 평균 자산과 비교해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옥스팜은 “상위 1%에 속하는 슈퍼 리



치들에 앞으로 10년간 0.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과 건강, 노인 돌봄 등의 분야에서 1억17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총재도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부가 세금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혁신적인 과세를 고려해야 한다”며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최상위 부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중제 음식 빛는 시진핑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춘제(설날) 연휴를 앞두고 19일(현지시간) 윈난성 퉁충시의 청수이현을 찾아 소수민족인 '와족'의 전통과자를 만들고 있다. 령중/신화연합뉴스

中 정부 “슈퍼마켓 등서 비닐봉지 퇴출”

플라스틱 감축 5개년 계획

중국 정부가 앞으로 5년간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적극 줄여나갈 계획이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19일(현지시간) 연말까지 주요 도시 슈퍼마켓과 쇼핑몰,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 등에서의 비분해성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새 청사진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까지 전자상거래와 특급 배송, 테이크아웃 식품 등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크게 줄이는 대신 대체재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또 2025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재활용 폐기 시스템을 확립한다.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앱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의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이 매년 11월 11일 개최하는 '광군제(독신자의 날)' 할인 이벤트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쇼핑축제로 자리 잡았으나 그만큼 플라스틱 오염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군제 하루 동안 무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중국 충칭에서 한 어린이가 플라스틱 물병을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고 있다. 충칭/신화뉴스

려 10억 건의 배송이 이뤄진다.

온라인 음식 배달 주문은 간편하고 종종 대기 시간이 10~15분에 불과해 심지어 농촌에서도 이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일회용 비닐 봉지나 플라스틱 용기 사용 증가로 이어진다.

중국 상하이 등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분리수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NDRC는 이날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NDRC는 비분해성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연내에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도시 지역에서 오는 25년까지 테이크아웃 서비스에서 이런 플라스틱 제품 소비를 현재보다 30% 줄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배준호 기자 baehj94@

中마저 ‘인구절벽’... 경제 새 뇌관 부상

신생아 수 1465만명 3년째 감소... 노동인구 감소 타격

‘인구절벽’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7일 발표된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146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하면서 3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인구 1000명당 10.5명으로 1949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출산율은 1980년대 반짝 반등한 이후 30년간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중국이 최악의 기근사태를 겪었던 1961년 이후 58년 만의 최저였다.

전문가들은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초과하게 되면서 2030년을 기점으로 중국 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절벽이 코앞에 닥친 것이다.

인구절벽이라는 시한폭탄이 돌아가면서 중국 정부는 1980년부터 35년간 유지해왔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2016년 신생아 수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가 뚜렷해졌다.

문제는 출산율 하락이 인구 고령화, 노동인구 감소를 부추겨 고꾸라진 경제 성장 둔화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인구의 20%가량이 60세 이상이다.

노동인구 감소는 생산성 저하와 노동 비용 증가를 가져와 공장에서부터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 인력 공급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노인 인구의 건강 의료 비용 증가로 경제 성장 둔화를 촉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로 30년 만에 최저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인구변화로 인해 2030년까지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포인트(P)씩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9년 GDP 성장률은 6.1%였다.

중국의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이 늘면서 직업과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데다 도시 주택 가격 상승 등 가

중국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 추이



계 부담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선진국에 뒤처진다는 점도 출산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녀 양육 부담을 부모가 떠안아야 하는 데 대한 반작용인 셈이다. 채용과 임금 관련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도 아이 낳기를 꺼리게 만든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더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난자 냉동 시술 비용 등 출산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출산율 하락세에 한번 접어들면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

김서영 기자 0jung2@

한 글자로 풀어본
사회적 가치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짜 짜

: 사회와 기업이 단짜이 되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짜짜짜' 박수 받음을 뜻함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짜' 지어, 더욱 박수 받는 행복을 만들 수 있도록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금감원 '제2 DLF사태·불건전 영업' 불시 사전 차단

올해의 중점 검사계획은

금융감독원이 2020년 중점 검사계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꼽았다.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감시하고, 고위험·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DLF,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한다.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속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 방안의 작근을 위한 금융회사 이행 실태도 살펴본다.

치매보험 등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부터 시행되는 모집수수료 개편을 대비해

소비자 보호·시스템 안정 목표 고위험·생활밀착상품 집중 점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에 엄정 대응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절차 문란행위가 없는지 점검한다. 금감원은 감독규정 시행 전에 GA가 수수료 획득 목적으로 부당계약을 집중 발생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 검사시 손해사정자회사,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근원적 요소를 통합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 지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상품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을 별도로 구축할 예정



금감원, 올해의 중점 검사계획

목표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시스템 안정

중점 검사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영업행위 집중 점검
-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를 위한 대내외 불안요인 점검

검사업무 운영 방식 개선

- 실효성 있는 검사 운영·검사품질 개선
- 금융회사 자율사정 가능 제고 및 소통채널 활성화
- 유관기관 협력 및 검사 역량 강화

이다. 현재는 은행 전체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등에 대한 간담회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나, 고위험상품 판매 분야 임원 대상 별도의 소통채널은 구축돼 있지 않다.

대내외 불안요인 점검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도 도모한다.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으로의 윗림현상을 집중 점검하고, 고수의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 리스크를 살펴본다.

최근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건전성 현황 등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및 맞춤형 감독도 추진한다. 예컨대,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 전략, 역대 주력 산업 부진 등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검사 운영을 위해 검사업무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리스크 중심의 유기적 협업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종합검사 실시 전·후 3개월은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전자료 요구 최소화, 과도한 검사 연장 금지, 종합검사 1개월 전 사전통지, 검사 결과 신속처리 등을 이행한다.

금융회사의 자율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 조치를 적극 활용해 중요 현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금융회사 수검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혁신금융 등 새로운 금융환경 조성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복잡해진 반면, 금감원의 검사 인력은 한정돼 있다"며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금감원은 검사시 자체 감사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손해율과 보험사기, 사업비를 낮추고 신시장 개척과 신기술 활용, 소비자 신뢰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이재구 손해보험1본부장, 서경환 전무, 김 회장, 서영중 기획관리본부장, 곽봉중 소비자서비스본부장.

김용덕 손보험협회장 "손해율 낮추고 신시장 개척"

"재판 등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올해 낮춰야 할 3가지 과제로 손해율·보험사기·사업비를 꼽았다.

김 회장은 20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손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협회가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손보산업은 과당경쟁, 과잉진료·과잉수리로 인한 손실 확대, 저금리로 인한 수익 악화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며 "올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보험사기, 사업비를 낮추고 신시장 개척과 신기술 개발, 소비자 신뢰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업계와 협회의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인공지능(AI)을 통한 보험서비스 혁신과 새로운 보험시장 창출에 나선다. AI 설계사 도입을 지원하는 등 판매부터 지급 단계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

법'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보험상품도 창출하기로 했다. 요즘 생활패턴 변화를 반영한 보험시장도 개척하겠다는 포부다. 지자체 시민 안전 보험·반려동물 보험시장·스마트 이동수단 등에 대한 위험 보장 역할을 키울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과 비급여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를 실손보험에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중 발표될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기로 했다. 백내장·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제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손해율이 계속해서 치솟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보험사가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점을 진료비를 지급보증하기로 한 시점으로 앞당기는 제도 개선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는 보험사가 치료 내용을 확인하려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이후에만 가능한 구조여서 과잉진료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손보험협회의 의견이다. 심사 기준이 미흡한 한방 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확대해 재판 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팀(SIU) 교육 및 변호사 풀을 구성한다. 효율적인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AI 기반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손보사 간 단기 실적 위주의 매출 경쟁은 지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수료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고, 설계사 스카웃 관련 부당행위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김 회장은 "불필요한 사업비를 억제하고 손보사의 자율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불편이나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지연 기자 sjy@

방문규 "올해 69兆 여신 공급 혁신성장·소부장 지원 강화"

수은, 업무 추진계획 발표
작년 실적보다 9.5兆 확대

수출입은행이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올해 총 69조 원의 여신지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수은이 전년도 거둔 실적 대비 9조5000억 원을 확대한 규모다. 특히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 등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은은 20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 16층 뱅크스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문규 행장은 "지난해 수은은 목표보다 2조 원이 넘는 60조 원의 여신을 제공하면서 자금공급 목적을 초과 달성했으나, 안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는 69조 원의 여신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혁신성장' 분야에는 전년(7조8000억 원)보다 지원금액을 9% 확대한 8조5000억 원을 목표 지원금액으로 설정했다. 수은은 혁신성장산업 신기술 확보를 위해 M&A, R&D 지원, 우대 조건 제공 등을 통해 신규 분야를 지원·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소·부·장 분야에도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 분야에는 전년보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수출입은행

5% 늘어난 20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전기차 산업 선점 지원을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에 금융지원을 목표로 했다.

또 중소중견과 해외인프라 분야에는 각각 28조1000억 원, 12조 원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은 해외펀딩, 상생협력대출 등을 활용해 정책자금 지원 규모와 수혜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중견의 거래기업 수도 5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인프라의 경우 단순 도급형 사업수주에서 벗어나 국내기업의 고부가 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수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공항·항만 등 신규 개발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객산 기자 jinsan@

통합연금포털 개편... 가입~개시 '원스톱'

앞으로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상품에 대한 수익률 비교에서부터 연금가입, 계좌이체, 연금개시 신청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통합연금포털을 전면 개편하고 2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연금저축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 공시를 개선했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익률·수수료를 산출기준(가정→실제)을 개선해 경과 기간별로 공시한다. 또, 회사별 개별상품 수익률·수수료를 그룹화해 금융회사별 수익률·수수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관련 사이트로 링크하는 대신 통합연금포털에서 직접 제공한다.

연금가입·이체·해지·연금개시 신청 시스템도 구축한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IRP)의 가입·이체·해지·연금개시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 세제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간단한 수치 입력으로 중도해지 및 연금 수령시 실무담약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간편세금계산 시스템도 도입했다.

다음달까지 모든 원리금 보장상품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동시에 퇴직연금 가입조건에 따라 가입자별 맞춤형 수수료를 사전에 산출, 비교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김범근 기자 nova@

손종주 웰컴금융그룹 회장 담복지재단 신임 이사장에

웰컴금융그룹은 20일 손종주(사진) 회장이 담복지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열린 이사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담복지재단은 20년 이상 '사랑의 전방 나누기' 운동을 펼친 종합 사회복지재단이다. 노인이나 영유아를 낮 동안 돌봐주는 4곳



의 데이케어 센터와 공립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한다. 장학사업과 교복 나눔 사업 등 활동도 진행한다.

웰컴금융그룹은 이번 담복지재단 후원계약을 통해 사회적 책임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웰컴금융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방정환 장학금은 매년 2회에 걸쳐 총 18회 동안 2300명이 넘는 학생에게 3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脫LCD’ LG화학...편광판 라인 가동 중단

〈LCD에 붙이는 필름〉

유리기판 사업 등 매각 지지부진
그룹 차원 LCD 설비 정리 맞춰
수익성 악화 막기 위해
국내 대형 라인 인력 재배치



LG디스플레이 연구원이 'LG 나노셀 TV'에 적용되는 LCD 편광판을 들어보이고 있다.

LG화학이 국내 대형 LCD(액정표시장치)용 편광판 생산 라인 일부를 가동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LG그룹 차원의 '탈(脫)LCD' 전략으로 LCD 편광판 사업 매각이라는 초강수까지 검토하던 LG화학이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대형 LCD 편광판 생산설비를 멈춘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의 오창광학 3동의 대형 LCD 편광판 생산라인이 이달 1일부터 가동을 멈췄다. 편광판은 LCD 패널의 전·후면에 각각 부착돼 빛을 통과하게 하거나 차단하는 필름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대형 LCD 편광판 라인이 멈췄고 아직 소형 LCD 편광판은 생산 중이지만 양이 많지 않다"며 "중국에서는 편광판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학 3동의 생산라인 가동이 멈추면서 관련 직원 180여 명이 여수 등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이 국내 대형 LCD 편광판 생산을 축소하는 것은 그룹 차원의 LCD 사업 철수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 '레드오션'으로 분류된 LCD 대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고부가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LCD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에 힘입어 LCD 패널 생산을 크게 확대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 탓에 공급 과잉에 빠지며 LG디스플레이가 고전하면서 적자의 늪에

빠져 결국 LCD 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LG디스플레이는 LCD 대신 OLED로의 사업 구조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를 최대 고객사로 둔 LG화학 역시 LCD용 소재 사업을 축소하고 대신 OLED 사업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LCD 편광판 사업부와 유리기판 사업부를 매물로 내놓은 대신, 지난해 4월 미국 다우 듀폰으로부터 차세대 OLED 소재 기술인 '솔루블(Soluble) 공정'을 2000억 원가량에 사들인 것도 새로운 전략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대형 LCD 편광판 생산 축소에 대해 업계에서는 LG화학의 '초강수'라고 평가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LCD 사업을 정리하려는 LG화학이 사업부 매각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생산을 축소해버리는 과감한 한 수를 뒀다는 평이다.

특히 LG디스플레이가 국내 TV용 LCD 생산을 올해 대부분 정리할 계획이라는 점도 LG화학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최근 미국에서 "TV용 LCD 패

널 생산 라인을 IT용으로 전환하고 국내 TV용 LCD 패널 생산을 연말까지 대부분 정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대형 LCD 편광판 생산 축소라는 초강수를 둔 LG화학이 탈 LCD 작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부터 편광판과 유리기판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매각 작업에 큰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LCD 편광판 사업에 대해 "사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사업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했다. 또 10월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는 사업 매각설과 관련해 "내용이 구체화했을 때 커뮤니케이션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유리기판사업은 최근 매각 작업에 실패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생산설비 중단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라인 효율화 작업 중이며, 상세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유진 기자 eugene@



‘LG 8K올레드 압도적 화질’ 日 영상 전문매체서 최고상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8K 올레드(OLED) TV가 화질 부문에서 일본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았다.

LG전자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모델명 88Z9)가 최근 일본 영상 전문매체 하이비가 주관하는 '하이비 그랑프리'에서 최고상에 해당하는 '금상(Gold Award)'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이비는 1983년 창간된 일본 최고 권위 영상·음향 전문지로, TV 분야에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LG 올레드 TV는 2016년부터 4년 연속 하이비가 추천하는 '베스트 바이(Best Buy)' 제품에도 선정됐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현대위아 '사륜구동' 플라인업 부품 양산

국내 첫 후륜용 'e-LSD' 개발

현대위아가 국내 최초로 후륜 차량용 전자식 차동 제한장치를 양산한다.

20일 현대위아는 후륜 구동 기반의 전자식 차동제한장치(e-LSD)의 개발을 마치고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생산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현대위아 창원2공장에서 이뤄지고 규모는 연간 약 6만 대 분이다. 이번에 생산하는 e-LSD는 최근 출시된 제네시스의 첫 SUV인 GV80에 장착된다.

현대위아가 개발한 e-LSD는 자동차의 주행 상황에 따라 바퀴에 전달하는 구동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부품이다. 일반적인 직진 주행 상황에서는 바퀴의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동력을 배분하다가, 급격한 선회 주행 혹은 눈에 빠지는 상황 등 한쪽 바퀴가 헛돌 수 있을 때는 반대편 바퀴에 동력을 집중해 탈출을 돕는다.

특히 고속으로 코너를 돌 때 운전자의 의도대로 회전이 되지 않는 문제인 '언더스티어(UnderSteer)'와 '오버스티어(OverSteer)' 상황에서 좌우측 바퀴에 동력을 적절히 배분해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현대위아는 유압식 액츄에이터를 이용, 노면 상태와 주행 상황에 따라 차랑에 발생하는 미세한 압력 변화를 인지하고 세계 최고수준인 0.25초 이내에 최적의 주행 동력을 배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바퀴에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토크 용량은 235kgf.m로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승용 및 SUV 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현대위아는 후륜 차량용 e-LSD 양산으로 사륜구동 부품 플라인업의 양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네 바퀴를 동시에 굴리는 구동 부품인 PTU·ATC·전자식 커플링에 이어 전·후륜 차량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e-LSD까지 갖추게 된 것으로 현대위아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완성차로의 사륜구동 부품 수주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한화테크윈, 중동 최대 영상보안 박람회 참가

글로벌 시큐리티 솔루션 기업 한화테크윈이 21일(현지시간)까지 두바이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영상보안 박람회 '인터섹 2020' 전시회에 참가했다. 한화테크윈은 와이즈넷 인공지능(AI) 영상보안 솔루션과 버티컬 타지 솔루션 등을 전시했다. 와이즈넷 AI CCTV 카메라는 사람·얼굴·차량·번호판 등을 실시간 감지하고, 특히 흔들리는 나무나 그림자 인식 오류를 줄여 감지 정확도를 높였다.

글로벌 시큐리티 솔루션 기업 한화테크윈이 21일(현지시간)까지 두바이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영상보안 박람회 '인터섹 2020' 전시회에 참가했다. 한화테크윈은 와이즈넷 인공지능(AI) 영상보안 솔루션과 버티컬 타지 솔루션 등을 전시했다. 와이즈넷 AI CCTV 카메라는 사람·얼굴·차량·번호판 등을 실시간 감지하고, 특히 흔들리는 나무나 그림자 인식 오류를 줄여 감지 정확도를 높였다.

사진제공 한화테크윈

제네시스 GV80 흥행...부품업체도 함박웃음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
단가 높아 실적 향상 기대
만도·현대위아·모비스 수혜

현대차가 선보인 제네시스의 첫 SUV 'GV80'이 흥행을 거두며 부품업체의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GV80에 들어가는 부품의 단가가 높고, 처음 공급되는 부품도 많기 때문이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GV80은 첨단 장비와 새로운 기술의 부품을 갖춰 제네시스 라인업 중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모델로 꼽힌다. 그만큼 부품의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GV80에 납품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담당하는 만도다. 만도가 이번에 공급하는 HDA II 패키지에는 내비게이션 연동 차선 변경, 에어 서스펜션과의 협조제어 등 기존에 없던 기능이 추가된다. 또한, GV80이

국산차 중 처음으로 갖춘 자동 차선 변경 기능에도 만도의 카메라와 레이더 시스템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도의 ADAS 매출 비중은 2018년 9%(5200억 원), 2019년 13%(7400억 원)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쉐나와 그랜저, K5 등이 출시되며 ADAS 공급이 늘어난 결과다. GV80 출시로 ADAS 부문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평균판 매단가(ASP)가 높은 GV80의 출시로 올해에도 매출 비중 15%(9200억 원) 수준의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파워트레인을 공급하는 현대위아 역시 GV80 출시로 힘을 얻고 있다. 현대위아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후륜 차량용 전자식 차동제한장치(e-LSD)를 비롯해 사륜구동 시스템, CVJ(등속 조인트) 등을 GV80에 공급한다.

아울러 새로 선보인 직렬 6기통 3.0 디젤 엔진의 납품도 맡는데, 이 역시 ASP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ADAS와 텔레매틱스를 공급하는 현대모비스, 전자식 변속기를 책임진 에스엘, 외장 부품을 생산하는 평화정공 등도 GV80 출시로 인한 구조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업체 관계자는 "GV80에 공급되는 부품이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건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 업계의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GV80은 연간 내수 판매목표인 2만 4000대의 60%에 달하는 물량이 출시 첫날에 예약되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GV80과 유사한 제원을 갖춘 GV70의 출시도 예정돼 있어 부품사들의 매출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유지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이익이 부품업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GV80 공급으로 주목받는 업체들은 하반기 GV70 출시로 추가로 관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유창욱 기자 woogi@

르노삼성 '정비' 프로모션 에어컨필터 20% 할인제공

르노삼성자동차가 2월 29일까지 정비를 받는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Hello! 2020' 프로모션에 나선다.

르노삼성차는 전국 460곳의 직영·협력 서비스점을 방문하는 모든 유상 정비 고객에게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메뉴를 할인하는 서비스점에서는 엔진오일 세트(합성유 포함)와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 세트를 함께 구매 시 1만 원을 추가로 할인한다.

아울러 SM3, SM5, SM6, QM5 등 르노삼성의 이전 세대 모델을 보유한 고객은 일반 에어컨 필터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르노삼성차를 중고로 구매한 고객이 서비스점을 처음 방문해 'MY 르노삼성' 모바일 앱에 가입하면 이벤트 기간이 끝난 뒤 재방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정비 쿠폰을 제공한다. 유창욱 기자 woogi@

제7회 '국제전기차엑스포' 아시아나 공식항공사 선정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전기차엑스포'의 공식 항공사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7회 국제전기차엑스포의 공식 항공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세계 유일의 순수 전기차엑스포인 국제전기차엑스포는 전시회와 콘퍼런스를 통한 전기차(EV)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 간 거래(B2B) 장' 마련을 슬로건으로 해 친환경 전기차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전기차 제조사 및 관련 산업체 전시회 △40여 개 세션으로 구성된 콘퍼런스 △B2B 프로그램 △부대 행사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함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 측과 상호협력 및 공동 마케팅 방안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승 기자 kissong@

항공업계, 신규보다 기존 노선 증편 '내실 다지기'

일본행 여객 실적 회복 안돼 경쟁력 있는 노선 중심 재편

대형항공사, 美·유럽 관광지 LCC, 동남아·제주 등 공들여

지난해 노재팬(NO JAPAN), 홍콩 시위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기존에 닦아 놓은 노선 중 경쟁력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증편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축소된 공급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 및 동남아 노선 등에 신규 취항하며 운항 범위를 최대한 확보했다면, 이제는 스케줄 조정을 통해 기존 노선 중 수요가 성장하며 수익성 제고에 도움 될 만한 노선의 공급 확대를 통해 내실 다지기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부터 호놀룰루(미국 하와이) 노선을 주 7회에서 11회로 늘려 운항 중이며, 호주 브리즈번 노선도 주 4회에서 7회로

증편했다. 인도 델리 노선도 매일 운항 중이다.

미 북동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뉴욕 노선을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로 증편해 운항 중이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최첨단 차세대 기재인 A350 4대, A321NEO 초도기 도입, 뉴욕 2 데일리 증편 등 기제와 네트워크를 보강해 미래의 경쟁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매년 하절기에 증편했던 인천-로마 노선의 수요가 늘고 있어, 이 노선의 확대 운항을 3월로 조금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해당 노선의 운항 스케줄은 기존 주 4회에서 주 7회(매일 운항)로 확대된다.

진에어는 겨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한달 전부터 인천-조호르바루 노선을 기존 주 7회에서 14회로 확대 운항 중이다.

조호르바루는 말레이시아 제2의 도시이자 연중 기후가 온화한 곳으로 겨울에 집중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 특히 싱가포르

와는 조호르해협을 가로지르는 다리로 연결돼 있다는 점도 여행객에게는 좋은 입지 조건이다.

청주공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노선을 확대 운항 중이다. 주 21회 운항 중인 청주-제주 노선에 1월 한 달간 18편의 임시편을 추가 편성해 방학과 명절 등 국내선 수요 증가에 대비하며, 청주-다낭, 청주-방콕의 부정기 노선 운항을 통해 노선 다변화에 나선다.

항공업계의 노선 확대 움직임은 울겨울 막바지까지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실적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화물 부문은 그나마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만, 여객 부문에서는 주요 수익 노선인 일본, 홍콩 노선의 수요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심각하다"면서 "신규 취항을 비롯한 기존 노선 증편은 물론 고객 확보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서울시 마곡동에 있는 넥센타이어 중앙연구소의 '미디어 월'이 17일 열린 '2019 앤어워드'(&Award)에서 최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올해로 13회째 열린 '앤어워드'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관련 대표 시상식이다. 넥센 미디어 월은 가로 30m, 세로 7m 규모의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영상으로 넥센타이어의 기능성을 표현해냈다. 사진제공 넥센타이어

<국제선>

플라이강원 좌석 절반도 못 채워

취항 두 달 '적자 비행'

국내선 탑승률 58%·국제선 39% "신규 효과 없어...떠올수록 손해"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취항 이후 낮은 탑승률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규 취항 효과를 누리지도 못한 채 적자율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11월 22일 양양-제주 노선에 첫 운항을 시작했다.

42편을 운항해 총 7812석을 공급했으며 이 가운데 5088명의 승객이 탑승했다. 여객 탑승률은 65% 수준이다. 12월에는 68%였다. 취항 초기에 항공권을 파격적으로 할인해 판매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이 탑승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추세는 1월 들어 바로 꺾였다. 플라이강원은 19일까지 국내선 98편을 운항해 1만8228석을 공급했지만 탑승객은 1만586명에 그치며 탑승률이 58%에 그쳤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국제선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26일 운항을 시작한 양양-타이베이 국제선의 1월 현재까지 탑승률은 38.6%다. 38편(7086석)을 운항했지만 2730석만 채웠다.

업계에서는 최소 75% 이상의 탑승률을 유지해야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인건비, 리스비용, 유류비 등 고정비용이 만만치 않고 특가 항공권을 통해 자리를 채울 경우 이익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플라이강원의 경우 강원도 양양을 거점으로 해 이용객이 타 공항보다 현저히 낮아 탑승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포공항을 베이스로 하는 에어서울은 2016년 7월 첫 취항 당시 3개월간 평균 90%의 탑승률을 기록하며 업계에 안착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50~60%대 탑승률은 사실상 (항공기를) 띄울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며 "입지 자체가 불리한 플라이강원이 취항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앞서 국내 항공사 최초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주주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 16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고 목표 금액을 10억 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투자 마감 열흘을 앞두고도 목표 금액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고 결국 투자기간을 2주가량 늘려 16일 10억 원을 채웠다. 김기송 기자 kissong@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LS산전, 협력사 납품대금 390억원 조기 지급 결정

LS산전은 설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해소를 위해 약 390억 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조기 지급되는 대금은 28일 정산분으로, 설 연휴 전인 22일에 지급할 계획이었다.

LS산전은 원자재 대금 결제 등 자금 수

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명절 연휴에 즈음해 대금을 미리 지급, 중소 협력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S산전은 2014년부터 설, 추석 등 명절에 앞서 협력사 납품 대금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1억 원 이하 대금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3월 열리는 '수소모빌리티쇼' 경기도 등 지자체 참가 잇따라

올 3월 개최될 '2020 수소모빌리티 쇼'에 경기도,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일 수소모빌리티 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경기도, 충남도,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등이 신청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시를 비롯해 수소 저장버스를 도입한 대전시,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전라북도 완주시·전주시, 수소 R&D 특화도시로 지정된 강원도 삼척시, 수소 해양선박 육성 거점 도시를 선포한 부산시 등도 참가를 고려 중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참다한 홍삼
CHAMDAHAN RED GINSENG

선맛이 특별할인전
2020.1.2~2.3

● 구매 금액별 할인혜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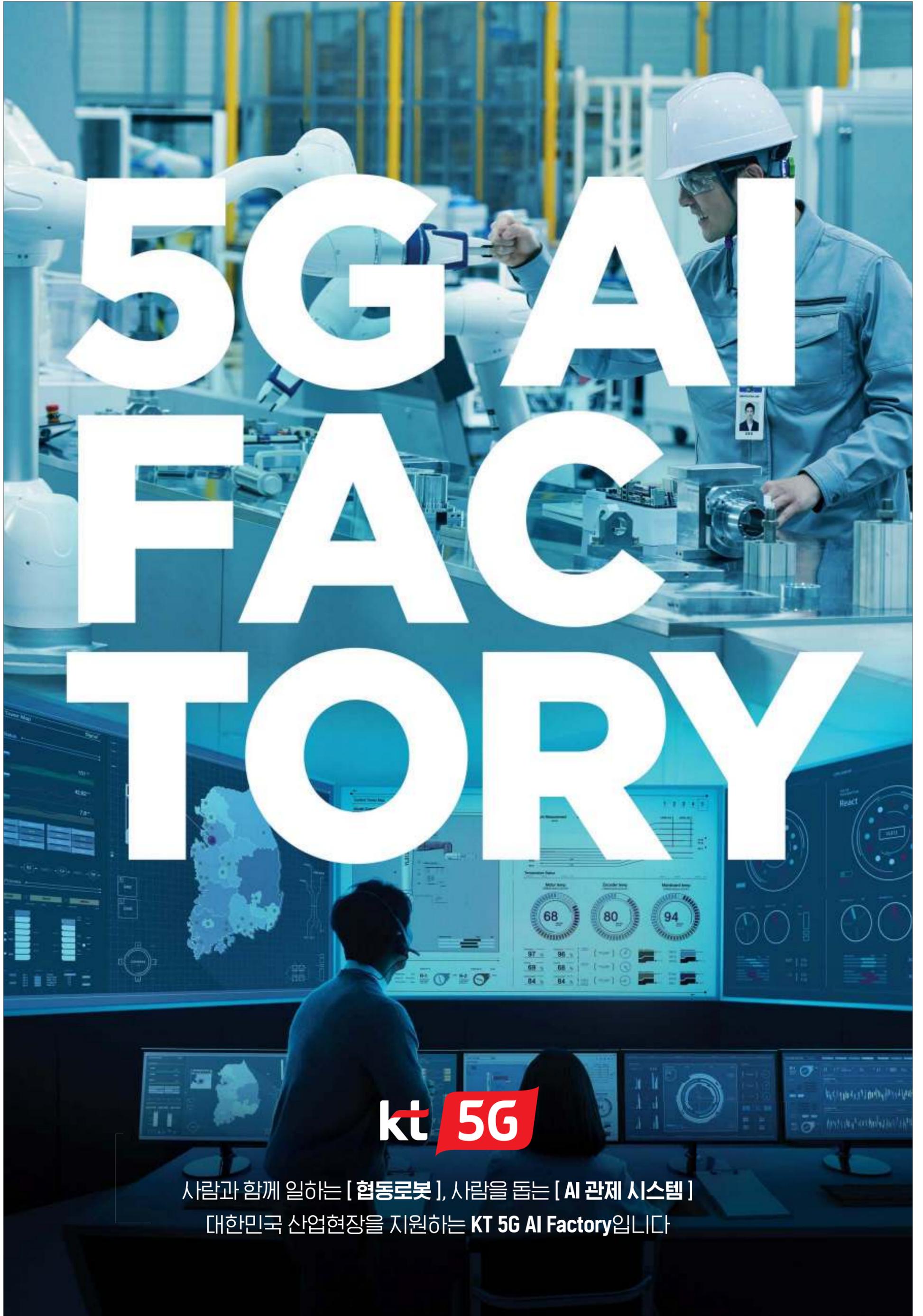
5% 할인 15만원 이상 구매시	10% 할인 30만원 이상 구매시	15% 할인 60만원 이상 구매시	20% 할인 200만원 이상 구매시
-----------------------------	------------------------------	------------------------------	-------------------------------

5+1 추가증정 & 10% 추가할인

홍삼정 마일드스틱 55,000원 49,500원	클래식 55,000원 49,500원	홍삼절편(120g) 55,000원 49,500원	다시,남자 67,000원 62,100원	다시,여자 87,000원 80,100원	홍삼대환 150,000원 135,000원
---------------------------------	---------------------------	----------------------------------	-----------------------------	-----------------------------	------------------------------

•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 5+1제품은 금액별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복수구매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고객상담전화 1661-0308 더 많은 혜택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chamdahan.com



5G AI FACTORY

kt 5G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동로봇], 사람을 돕는 [시각제 시스템]
대한민국 산업현장을 지원하는 KT 5G AI Factory입니다

쿠팡,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소기업에 고발당해

화장품 업체 '난다모', 상표 도용 에이피알 상대 소송전 쿠팡에 문제 된 '매직스톤' 유통중지 요구했지만 계속 판매 김범석·고명주·정보람 등 쿠팡 경영진 3인 형사고발

천연화장품 업체 난다모가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과 김범석 쿠팡 대표 외 2인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난다모와 화장품 벤처회사 에이피알(전 에이프릴스킨) 간 소송전이 쿠팡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20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난다모는 지난달 23일 쿠팡과 김범석, 고명주, 정보람 쿠팡 대표를 상표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쿠팡이 난다모의 상표권을 도용한 에이피알의 제품을 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난다모는 1999년 설립된 중소 천연화장품 업체다.

난다모는 자신들의 상표권을 불법 도용

한 제품을 유통하지 말아 달라고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 유통 업체들에 지난달 4일 일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여타 유통 업체와 달리 쿠팡은 이를 무시했다. 지난달 5일 내용증명 수령 뒤에도 상표 침해 상품을 직매입해 로켓배송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는 게 난다모의 주장이다.

난다모 관계자는 "쿠팡은 지난달 20일 이후에도 판매를 이어 오다가 난다모가 고발한 사실이 업계에 소문이 나자 그제서야 물건을 사이트에서 내렸다"고 말했다.

난다모가 내용증명을 보내 유통을 중단 하라고 고지한 제품은 열정비누로 알려진 매직스톤 비누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제품을 유통해온 에이프릴스킨의 이주광·

매직스톤 상표권 분쟁일지

2015년 10월	에이프릴스킨(현 에이피알)이 매직스톤 상표무효심판 청구
2016년 7월	난다모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에이프릴스킨 형사소송 → 에이프릴스킨, 이주광·김병훈 법인 및 개인 각자 500만 원 벌금형
2016년 10월	에이프릴스킨이 청구한 매직스톤 상표무효 위법 판결 선고
2017년 11월	난다모가 에이피알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2018년 4월	난다모 상표법 위반 혐의로 에이피알, 이주광·김병훈 대표 두 번째 형사소송 제기 → 각각 700만 원 벌금형 → 에이피알 측 항소
2019년 9월	민사 1심, 에이피알 6억 원 손해배상 판결 → 에이피알, 항소 제기
12월 23일	난다모가 쿠팡, 쿠팡 대표 상대로 상표권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 제기



김병훈 공동대표는 2014년10월 상표를 도용한 매직스톤 비누로 창업했다. 당시 동영상 마케팅으로 대박을 친 매직스톤 비누의 성공 스토리는 2018년 미국 포브스에 게재되면서 대학생 2명이 창업한 대표적 청년기업으로 국내 여러 매체에도 화제의 기업으로 소개됐다.

난다모가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쿠팡이 판매한 에이프릴스킨의 매직스톤 비누는 난다모의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다. 2015년 에이프릴스킨(현 에이피알)이 특

허법원에 난다모의 매직스톤 상표를 특허 법원에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의 상표권 침해 소송은 시작됐다. 그 뒤 3년 넘게 진행해온 특허법원의 소송은 모두 난다모의 손을 들어줬다.

쿠팡은 2015년부터 상표를 침해한 매직스톤 비누를 유통하기 시작했다. 고소장에서 난다모는 쿠팡이 시장에서 이미 유명세를 탄 이 상표를 그대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천연허브 성분의 수제비누라는 점, 거품을 낸 뒤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씻어내

는 특유의 사용법도 함께 도용한 불법 복제 제품을 유통했기 때문에 죄질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쿠팡은 2016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지속해서 해당 제품을 판매해 왔다.

쿠팡은 향후 방침 등과 관련해 "법과 도의에 어긋난 부분을 확인해 조치하겠다"며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표를 도용해 사업을 시작한 에이피알과 이주광·김병훈 공동대표는 상표법 위반죄로 2017~2018년에 두 번의 형사 처벌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11월 난다모는 에이피알에 손해배상 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에이피알에 6억 원을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에이피알은 7억 원을 공탁하고 항소한 상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LG U+, 모바일 가입자 1500만 돌파

'5G 콘텐츠' 가입 증가 견인 10개월 만에 100만명 유치

LG유플러스는 자사 모바일 가입자(MNO 및 MVNO)가 1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3월 1400만 가입자 달성에 이어 10개월 만에 거둔 쾌거다. LG유플러스의 모바일 가입자 수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를 발판으로 연간 8% 이상 급성장했다. 최근 5년간 나타난 5~6%대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주력한 5G 마케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U+VR+AR, 클라우드게임' 등 다양한 5G 콘텐츠를 바탕으로 10대부터 40대까지 고령 계층의 가입자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연령대별 분포는 40대 16%, 20대 15%, 30대 14%, 10대 5%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IPTV에서도 유무선 결합을 통한 모바일 가입자 유치에 힘을 보탰다. U+tv는 키즈 서비스 '아이들나라'를 중심으로 30~40대 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글로벌 OTT '넷플릭스' 제휴를 통해 TV뿐만 아니라 모바일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이동통신 가입자 1500만 명 돌파 소식을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을 필두로 한 자사의 차별적 5G 콘텐츠들이 호응을 얻으며 모바일 전체 가입자 증가를 견인했다"며 "실제 5G 고객들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LTE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날 정도로 5G 콘텐츠 수요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인당 모바일 데이터 평균 사용량은 LTE가 월 12GB, 5G는 최대 월 30GB 이상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올 연말까지 전체 모바일

가입자 중 5G 고객 비율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5G 가입자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Consumer사업 총괄 사장은 "모바일 가입자 1500만 달성은 5G뿐만 아니라 홈·미디어, IoT, AI 서비스 등 모든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시너지를 발휘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무선 사업을 비롯한 각 영역의 고른 성장을 밀도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경영 악화에도 사회공헌 확대" 이미지 쇄신 나선 시멘트업계

지역사회 투자·각종 지원금 年 100억서 250억으로 늘려



쌍용양회 동해공장. 사진제공 쌍용양회

일본산 석탄제 수입 규제와 건설경기 침체, 각종 환경부담금 증가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시멘트업계가 지역 사회공헌 확대에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다. 경영악화로 인해 위기가 깊어지고 있지만 일본 폐석탄 수입으로 불거진 국민 반감을 되돌리는 데 간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기사 회생하려는 시멘트 업계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20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업체 전체의 최근 10년(2009~2018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981억 원으로, 지난해는 500억 원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각종 환경부담금 규제 증가로 인해 올해부터는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시멘트 업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에 대해 1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업체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세로 인한 혜택이 적자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에 돌아가지 않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부과하는 세금과 '중복 과세'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까지 더해질 경우 '삼중과세'라는 논란까지 일킬 수 있다. 업계는 자원이 과세가 실시되면 연간 약 530억 원에 달하는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올해부터 실제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 사회공헌 확대에 공을 들인다는 복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멘트 공장 지역 주민을 위해 환경개선 노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투자와 각종 지원금을 현재 약 100억 원(톤당 200원) 수준에서 매년 250억 원(톤당 500원) 수준으로 늘려 실질적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멘트협회와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시멘트업계는 온실가스 등 배출 부담금을 모두 포함해 1740억 원 이상의 환경부담금을 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석탄제 등 일본산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 등을 통해 수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일본 석탄제 수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업계는 일본 석탄제 수입을 대체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로 인한 운송비 부담 증가로 업계 전체적으로 약 576억 원의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가 보는 올해 순이익 500억 원에서 일본 석탄제 수입 대체로 인한 수익 감소가 576억 원에 이를 경우 결국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여기에 지역자원 시설세까지 부과될 경우 500억 원 이상 이 고스란히 빛으로 날게 된다.

KDB미래전략연구소 황정환 위원은 "정부·국회 및 시멘트 업계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당 지역과 시멘트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멘트 공장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재훈 기자 yes@

중기부·고용부·중기중앙회 '노동시간 단축 협의체' 구성

기업 설명회·간담회 등 통해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협의체는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만들어진다. 본부는 위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구성되며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지방도 2월 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직원 50인 이상 299명 이하인 기업이 제도기간(1년) 안에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 지역본부)은 현장에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상담은 물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들을 지원한다. 또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와 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한다. 우선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해 주 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향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 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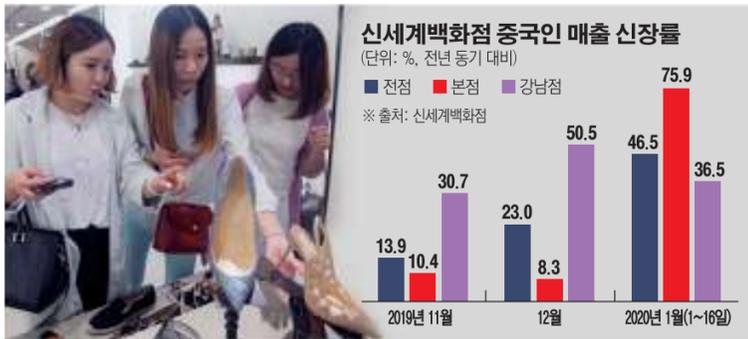
'적정 시간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 방안 모색 및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유커가 돌아왔다” 백화점·면세점 ‘中춘제 특수’ 올인

中 한한령 해제 분위기 타고
신세계百 1월 중국인 매출
지난해 대비 46.5% 경증

24일부터 中 최대 명절 ‘춘제’
카드사 마케팅·증정·할인 등
유커맛이 다양한 이벤트 진행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24~30일)이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유커를 직접 맞이하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은 중국인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로 손님맞이에 나섰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11월 중국인 매출 신장률이 13.9%를 기록한 데 이어 12월에 23.0%로 늘었고 올해 1월(1~16일)은 46.5%까지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달 초 최대 규모 인센티브 관광객이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3년 만에 방한해 주요 면세점을 찾는 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백화점과 면세점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관광은 기업이 우수한 성과를 낸 임직원들에게 포상의 성격으로 제공하는 여행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해 11월 누적 기준으로 2016년 고점 대비 약 73%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달 초에는 중국 선양의 건강식품·보조기구 제조회사 이충탕(益涌堂)의 임직원 5000여명이 인센티브 관광으로 5박 6일간 방한했는데, 이는 한한령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단일 규모로는 최대다.

특히 매출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곳은 백화점과 면세점이 건물물 함께 쓰는

점포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경우 이달 중국인 매출이 무려 75.9%까지 오르며 12월 대비(8.3%) 9배 이상이 올랐다. 특히 중국 인센티브 관광객이 면세점 명동점을 방문한 11일 하루 동안 본점 중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4.4% 올랐고, 본점 전체 매출도 10.2% 신장하는 등 유커가 점포 전체 실적까지 이끌었다.

신세계 강남점은 신장률이 더욱 가파르다. 강남점은 K-팝 관련 관광 인프라가 탄탄해 유행을 쫓는 ‘밀레니얼’ 중국인 개별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외국인 전체 매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27.5%인 데 비해 중국인 매출은 매달 30%가 넘는 높은 신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춘제를 맞아 해외 여행이 증가하는 유커를 맞이하기 위한 국내 백화점 업계의 움직임도 빠르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춘제기간 외국인 고객 대상으로 ‘카드사 마케팅’과 ‘구매 고객 감사품 증정 행사’ 등을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31일까지 ‘알리페이’로 상품권 60만~100만 원 구매 고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2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의 4%를 즉시 할인해준다. 아울러 ‘은련카드’로 상품권 일정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합산 금액 10%를 할인해

준다.

또한, 고객 감사품 이벤트도 준비해 ‘설화수’ 브랜드 10만 원 이상 구매 시 ‘기초 여행 4종+운조 마스크 1매’를 제공하고, 화장품 브랜드 ‘후’에서는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여행용 5종+생활용품 13종’을 증정한다. ‘프리메라’에서는 외국인 10만 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다음달 16일까지 은련카드 100만 원 이상 구매하는 중국인 고객들에게 10%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로 3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상품권 3만 원을 증정한다. 알리페이로 1200위안(약 20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50위안(약 8442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2030 유커들이 즐겨 찾는 여성 컨템포러리 장르 시즌오프도 신세계백화점 전점에서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피어리, 타임, 이자벨마랑 등 다양한 인기 브랜드가 참여하며 최대 30%까지 시즌오프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6일까지 압구정 본점, 무역센터점, 신촌점 등 3개 점포에서 은련카드 20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금액대별로 10%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남주현 기자 jooh@

롯데리아, 베트남 투자 확대 ‘새우패티’ 생산기지 8월 완공

155억 출자 호찌민 공장 설립... 동남아 수출 전초기지

롯데리아가 계열회사인 롯데푸드와 손잡고 올해 말부터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새우버거’의 주재료인 ‘새우 패티’를 생산한다. 유지식품, 육가공 등의 생산을 맡고 있는 계열사인 롯데푸드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베트남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비용 절감을 추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롯데리아는 이 공장을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지알에스는 20일 해외 출자법인인 LOTTE F&G Vietnam에 155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지알에스 관계자는 “베트남 호찌민에 건설 중인 식품 공장 투자에 관한 건으로 롯데푸드와 5대 5 비율로 출자하는 것”이라며 “새우 패티와 육패티, 치킨을 이곳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롯데지알에스는 올해 8월 공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지식품과 육가공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계열사인 롯데푸드가 생산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는 우선적으로 베트남 현지 롯데리아에 납품된다. 다만, 롯데지알에스는 주력 제품인 새우버거에 쓰이는 새우 패티의 경우 베트남과 함께 국내에서도 즉각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롯데리아는 국내 협력업체로부터 새우 패티를 납품받아 왔다. 롯데지알에스가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에서의 생산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국내에 시판되는 새우버거의 새우 패티는 올해 안에 전량 베트남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리아는 또한 베트남 공장을 동남아 시장 공략의 전초 기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글로벌 롯데’를 키워드로 베트남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16개 계열사를 진출시키는 등 동남아를 ‘전략적 요충지’로 선택한 롯데그룹의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롯데리아는 베트남에 1998년 처음 진출한 이후 공격적인 매장 확대와 현지화 메뉴 운영으로 2011년 100호점을 개설했고, 현재는 200개 이상의 매장 보유하며 베트남 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리아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몽골 등 동남아 8개국에 진출해 300개가 넘는 해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롯데리아는 지난해 12월 19일 버거류와 디저트 등 제품 26종의 판매가를 인상했다. 버거류 13종과 디저트류 6종, 드링크류 2종, 치킨류 5종이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대표 메뉴인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는 38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 올랐고, 디저트류 룽치즈스틱도 1700원에서 1800원으로 마찬가지로 100원 인상됐다. 회사 측은 가격 인상에 대해 임차료와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제반 경비 증가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세뱃돈도 모바일로

1월 ‘SSG머니 선물하기’ 32% 쏙

모바일로 세뱃돈을 보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간편결제 플랫폼 SSG페이의 ‘SSG머니 선물하기’ 이용자가 지난 추석 명절 시즌 전월 대비 79%로 크게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에 SSG머니 선물하기를 이용한 금액 또한 전월 대비 45% 증가해 50억 원여가 명절 선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SSG머니는 SSG페이에서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로, 무통장 입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상품권, 포인트 등으로 충전해 사용 및 선물이 가능한 선불 결제 수단이다.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선물할 수 있는 편의성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필드, SSG닷컴 등 쇼핑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 서울시·부산시 세금 납부, 우체국, 교통카드 등 1만여 개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 때문에 선물하기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해 설을 앞둔 1월 SSG머니 선물하기 일평균 이용자도 지난해 12월에 비해 32%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성장세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남주현 기자 jooh@

아이오펜 ‘슈퍼레티놀’ 화장품 출시

레티놀 함량 130% 높여

고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아이오펜이 국내 최초의 고품량 슈퍼레티놀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20일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아이오펜은 고품량 슈퍼레티놀인 ‘레티놀엑스퍼트 0.1% <사진>’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 제품은 과거 ‘아이오펜 레티놀 2500’에 비해 130%나 높은 고품량 순수 레티놀 제품이다.

레티놀 0.1%는 백인과 히스패닉 여성보다 피부 민감도가 높은 한국 여성이 매일 사용하기 적합한 함량이다.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품량 심사까지 완료했다.

‘아이오펜레티놀엑스퍼트 0.1%’는 단 2주 만에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표정 주름, 잡재 주름, 인상 주름은 물론 가장 회복이 힘들다는 붓고 주름까지 개선한다. 여기에 히알루론산, 판테놀 성분을 함께 함유해 피부 보호 및 장벽 강화 효과도 있다.

개봉 후 마지막 한 방울까지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3단계 산소 차단 시스템이 적용된 용기를 사용했으며, 한층 개선된 안정화 기술로 레티놀의 효능을 온전히 담아냈다.

레티놀은 비타민 A의 일종으로, 고대 그리스에서도 사용했던 기록이 있을 정도



로 오랜 역사를 가진 성분이다. 레티놀은 피부의 레티놀 수용체와 결합해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탁월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레티놀은 매우 다루기 어려운 성분으로 유명하다. 빛과 공기, 수분에 모두 민감하게 반응해 안정화하기 어려운 데다 적정 농도를 벗어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레티놀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효능을 유지하도록 안정화하면서도 자극은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뷰티 업계에서는 레티놀을 대체할 만한 유효 성분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레티놀에 버금가는 성분을 찾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 때문에 1997년 국내 최초로 레티놀 안정화에 성공한 아이오펜은 25년 동안 한결같이 레티놀 성분에 전착해 왔다. ‘레티놀 별동대’라 불리는 아이오펜 연구원들이 25년째 레티놀만을 연구한 결과 올해 선보인 ‘슈퍼레티놀’은 별동대의 연구 역량을 집대성해 고도화된 안정화 기술과 역대 최고 함량을 구현했다.

특히 최근 화장품업계에서 고기능 트랜드가 이어지며 중장년층을 넘어 2030세대에서도 궁극의 안티에이징 성분인 레티놀을 재조명하고 있고 글로벌 브랜드들도 앞다투어 레티놀 제품을 다시 선보이고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올 설엔 ‘사봉’ 선물세트

이마트가홀 파티 트랜드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명절 선물세트를 벗어나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봉세트’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사봉세트는 명품 과일 ‘사인머스켓’과 곱의 제왕 ‘한라봉’을 조합한 선물세트다. 여름철 인기 과일인 사인머스켓과 겨울 인기 과일인 한라봉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세트는 사인머스켓 2송이와 한라봉 4개로 구성됐다.

사진제공 이마트

CJ제일제당, 내달 26개 품목 9.7% 가격 인상

CJ제일제당이 냉장햄·소시지·베이컨 등 26개 품목의 가격을 다음달 13일부터 평균 9.7%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냉장햄 가격 인상은 2014년 6월 이후 처음이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장기화로 수입 원료육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최소화하고 시점

도 설 연휴 이후로 늦췄다”고 설명했다.

냉장햄에 사용되는 미국산 앞다리 살과 베이컨의 주 원료인 유럽산 삼겹살 시세는 2015년 대비 각각 25%와 42% 상승했다. 이는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이 사육 두수 급감으로 수입량을 늘리면서 전 세계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단기 과열’ 리츠 시장, 경고음 내는 금투업계

대내외 불확실성 줄며 리츠 시총 1.9兆로 한달 새 7.9% ‘뚝’
국내 시장 선도 신한알파 작년 11월 최고점 대비 20.3% 하락
전문가 “자산가치 제대로 평가해야 가격 거품 피할 수 있어”

빠른 속도로 팽창한 리츠 시장은 최근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투자자의 위험자산 선호로 중위험·중수의 투자상품인 리츠에 대한 고평가가 다소 희석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리츠의 자산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시장 과열로 인한 가격 거품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7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1조9404억 원으로 전달보다 1665억 원(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급등한 리츠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중순부

다. 특히 국내 상장리츠 시장을 선도하던 신한알파리츠의 경우 지난해 11월 8일 기록한 최고가(9440원)보다 20.34% 하락한 7520원을 기록 중이다. 이리츠코크랩도 신한알파리츠와 같은 날 기록한 고점(7900원)보다 20.89% 빠진 6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밖에 롯데리츠(-19.15%), NH프라임리츠(-10.61%), 에이리츠(-18.00%), 모두투어리츠(-8.27%), 케이탑리츠(-27.49%) 등이 52주 최고가에서 다소 떨어진 상태다.

위험자산 선호도가 커질수록 리츠 주가는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세일 경우 투자자는 안

상장리츠 주가 추이

※1월 17일 기준

구분	52주 최고가	현재가	52주 최고가 대비율
NH프라임리츠	6600원	5900원	-10.61%
롯데리츠	7100원	5740원	-19.15%
신한알파리츠	9440원	7520원	-20.34%
이리츠코크랩	7900원	6250원	-20.89%
에이리츠	7610원	6240원	-18.00%
모두투어리츠	3325원	3050원	-8.27%
케이탑리츠	1295원	939원	-27.49%

※출처: 한국거래소

정적인 배당수익보다 시세차익에 관심이 커진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장이 불안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5~6%의 배당수익을 보장하는 리츠 인기가 높아진다. 실제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한 4월 17일부터 최저치로 추락한 8월 6일까지 14.37% 하락하는 동안 신한알파리츠와 이리츠코크랩 등은 각각 13.77%, 16.78% 올랐다.

게다가 상장리츠 인기로 국내 리츠 ETF(상장지수펀드)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펀드에 담긴 리츠 가격의 급등을 부추겼다. 지난해 7월 상장된 국내 리츠 ETF인 ‘타이거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의 현재 순자산은 설정 당시 금액(102억 원)의 11배가 넘는 1163억 원에 달한다. 이 펀드의 기초지수에 포함된 신한알파리츠 주가는 펀드 상장 이후 3개월간 20% 가까이 올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상장 리츠 시장 규모가 커질 때까지 리츠 ETF 상장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리츠 수가 최소 10개 이상이어야 이 같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거품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해 12월 상장하려던 신규 리츠 ETF도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해 11월 거래소 심사 통과 뒤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던 중 거래소와 금감원이 상장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리츠 ETF 상장을 추진 중이던 삼성자산운용도 일정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리츠 주가가 과열돼도 결국 투자자산의 가치를 따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자산가치를 따져봐야 리츠의 주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셈이다.

일례로 롯데리츠의 경우 롯데쇼핑이 보유한 백화점, 마트, 아울렛 8곳(점포수 기준 10개 점포)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잠실 롯데월드와 롯데월드타워 등 알짜 부동산은 빠져 있다.

신서정 SK증권 연구원은 “롯데리츠 주가는 이미 단기 과열 양상을 보여 추가 상승 여력이 없어 보인다”며 “가격 대비 순자산가치(P/NAV)가 대체로 1에 수렴하고 있는 해외 사례로 볼 때, 주가 상승은 결국 롯데리츠의 자산가치로 점철된다”고 지적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해외 파생상품 직거래 급증... 국내 시장 위축 우려

DLF 사태 영향 정부 규제 잇따라
일반투자자도 해외 거래소 통해
작년 거래 4.9兆, 전년비 14% ↑
美 3483억 달러로 전체 79% 차지

국내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직거래가 크게 늘면서 국내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4조94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품

국내 투자자 해외파생상품 거래 상위

(단위: 달러)

상품명	거래대금	국가별 상품군
NASDAQ 100 E-mini	556억9293만	미국 주가지수
Crude Oil, WTI	440억6971만	미국 원유
Gold, 100 oz (Gold futures/Option)	436억8477만	미국 귀금속
US Treasury Note, 10Yr	302억6205만	미국 채권

※출처: 금융투자협회

목도 726개에서 825개로, 거래 국가 역시 14개국에서 16개국으로 늘었다. 최근 DLF(파생결합펀드)와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사태와 정부의 규제 등으로 국내 파생시장이 위축된 영향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투자자도 해

외 거래소를 통해 항공유 및 원자재 선물을 직접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귀금속(45개), 옥수수(8개), 대두(16개), 채권(73개), 천연가스(14개), 축산물(9건), 원유(84건) 등을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해외 파생상품들이 거래됐다.

현재(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은 사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NASDAQ 100 E-mini’으로 한 달간 556억9293만 달러가 거래됐다.

이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Crude Oil’이 440억6971억 달러, 뉴욕선

물거래소(COMEX)에서 ‘Gold, 100 oz’가 436억8477만 달러가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Hang Seng(HKG)’, ‘Euro Stoxx 50(EUX)’, ‘Nikkei 225(OSE)’ 상품들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한 시장은 미국이 제일 크고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가 길지 않아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다만 국내의 경우 관련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 원자재 관련 파생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규모는 3483억257만 달러(394만7928

계약)로 전체 해외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79.50%에 달했다.

이어 △홍콩(408억9653만 달러, 52만6059계약) △독일(73억9694만 달러, 153만5895계약) △싱가포르(46억4534만 달러, 14만1936계약) △영국(34억5920만 달러, 86만1999계약) 등도 거래량이 많았다. 이외에도 대만, 말레이시아,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이 거래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전군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시장은 정체를 거듭한 반면 국내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규모는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며 “선물상품을 이용해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려는 개인과 구조화상품 헤지운용을 위해 활용하는 기관 등 해외시장 투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코가 만들어갑니다.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대표전화 : 1588-3570



가계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개인연체자 채무부담 경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기업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DIP금융(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선박펀드 운영

공공

저활용 국·공유재산 가치창출
유류 저활용 국·공유재산 관리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온비드(OnBid) 운영

국토부 '역세권법' 재정비... 수서·지제역 수혜 예상

용적률·건폐율 상향 혜택 많지만 개발이익 공공시설 의무 투자 부담 지자체 도시개발법 등 사업 우회 10년간 역세권법 활용 개발 0건

역세권 개발 어떻게 개선되나

	현행	개선안
비용	감면 규정 없이 개발 이익의 25% 이상을 철도 시설 등에 의무 재투자	개발 이익금 산출 방식 정비, 역사·환승 시설·연계도로 건설 시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 명시
인센티브	기존 용적률·건폐율 최대 1.5배 상향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세제 혜택 검토
역세권 개발 구역 지정 대상	철도역, 철도시설(차량기지, 정비창 등)	철도역, 철도시설+철도 관련 시설 이전으로 빈 유휴지

국토교통부가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철도시설 인근이나 차량기지 이전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및 개발지침 마련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지원 확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현재도 역세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법)'이 있다. 역세권법에 따라 '역세권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축 바닥면적 비율)을 최대 1.5배까지 높일 수 있다.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문제는 역세권 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생기는 부담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개발이익환수 제도만 해도,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역세권 개발 구역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규정이 없으면 정상지가(땅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4분의 1 이상을 그대로 철도나 공공시설을 짓는 데 의무 투자해야 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서울역, 서부역이나 수색역 개발사업같이 굵직한 프로젝트도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 요구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점 때문에 역세권법은 2010년 제정된 후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며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 우회로를 활용했다. 역세권법을 활용할 때보

철도 시설 이전 유휴부지 포함 기존 인센티브에 '稅혜택' 검토 '역세권 개발 사업' 본격화 땐 수서역, 서울 동남권 거점 발돋움

다 혜택은 적지만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절감할 수 있어, 우회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이번에 용역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점을 보완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발 이익금 산출 방식을 다시 손봐 사업자가 과다하게 비용 부담을 지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역사(驛舍)나 환승시설, 연계 도로를 지을 때 지자체에서 재원

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혜택은 더욱 확대한다. 국토부는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이 이전한 빈 땅을 개발할 때도 역세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2018년에도 철도역 주변에 만 한정됐던 역세권법의 적용 범위를 차량기지, 정비창 등 철도시설 주변으로 확대했다. 기존 용적률·건폐율 상향 인센티브와 함께 역세권 개발사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선 역세권법 개선 작업의 첫 수혜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수서역과 경기 평택시 지제역을 꼽는다. 2018년에도 두 역의 역세권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역세권법이 개정되서다.

이 가운데 수서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인근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국토부는 수서동 일대 38만 6664㎡에 유통과 주거시설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사업비만 6700억 원이 책정됐다. 인근에선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하면 수서역 일대가 주거와 교통, 상업 기능을 한데 갖춘 서울 동남권 거점으

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의 잠재력도 만만찮다. 지제역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오산 세교신도시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라는 거대 수요를 배후에 두고 있다.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도 경기 동남권 지역 발전을 위해 지제역 인근 개발에 적극적이다. 한국철도도시공단과 평택시 등에서 지제역 역세권을 개발하면 500억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역세권법의 개정 속도에 따라 서울 시내 차량기지 부지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에선 시내 차량기지를 시외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주택이나 상업시설로 개발하려 한다. 서울 시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넓은 부지를 갖춘 차량기지의 매력에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역세권법까지 적용돼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향되면 사업성이 더 높아진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加耶本性 加耶本性情

가야금의정

칼과현의정

GAYA SPIRIT-IRON AND TUNE

2019.12.3. 화 - 2020.3.1. 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SPECIAL EXHIBITION GALLERY, NATIONAL MUSEUM OF KOREA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협력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의 1688-0361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단지'로 바뀐다

임대·행복주택 등 1200호 공급 강제철거 아닌 '따뜻한 개발' 추진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강제 철거되거나 쫓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포용하며 함께 잘사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따뜻한 개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70년대 집창촌과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등포 쪽방촌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며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불량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현재 360여명이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쪽방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구 중심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부족을 이유로 사업은 중단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정비사업을 정비사업은 쪽방촌 주민과 지원시설을 그대로 수용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영등포 쪽방촌 일대 1만㎡를 정비해 쪽방 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조감도.

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민간 분양주택 등 총 12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구역은 2개 블록으로, 복합시설1에는 쪽방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등 600호를 공급한다. 새롭게 마련되는 임대주택은 주거면적이 4.8평으로 2~3배 넓어지고 큰 부담이었던 월 임대료도 3만~4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 단지에는 쪽방 주민의 생활과 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가 설치된다.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 급식과 진료 등을 제공한 광야교회, 요셉의원, 토마스의 집 등 각종 돌봄시설도 이곳에 재정착한다.

행복주택 단지에는 입주주민과 지역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과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문선영 기자 moon@

서울 아파트 상위 10% 매매가 평균 20억 돌파

지난해 매매 거래된 상위 10%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처음으로 20억 원을 돌파했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매매 거래가격 상위 10%의 평균 가격은 21억3394만 원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고 가격이다. 2018년 17억5685만 원에 비해 3억7709만 원(21.5%), 2015년과 비교하면 약 9억 원 이상 치솟았다.

상위 10% 평균 가격 상승으로 하위 10%와의 가격 차는 9.41배로 더 벌어졌

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과열됐던 2006년(10.68배) 이후 최대 수준이다.

2012년 이후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 두 구간의 가격 차이는 2017년 들어 7.61배로 벌어졌고 2018년 8.19배로 확대된 바 있다.

상위 10%의 지역별 거래 비중을 보면 강남3구가 80.60%를 차지했다. 최근 신흥 고가아파트가 늘고 있는 마곡성(마포·용산·성동구)은 9.6%로 2018년(15.4%)보다 비중이 줄며 시장 확대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강남권 고가아파트가 전체 매매 거래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조국 무혐의' 입장 상사에 "당신이 검사냐" 고성 항의... 상갓집 충돌 추미애 '검사 징계카드' 꺼내나

“개탄스럽다... 조직문화 바꿔야”
법조계 “품위유지 손상 징계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간부가 상관에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과 관련해 “개탄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법조계에서는 ‘품위유지 손상’ 명목으로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기자단에게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들은 동료 검사의 장인상 빈소가 차

려진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51·27기)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라”, “당신이 검사냐” 등의 말로 치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으로 발탁된 뒤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양 연구관은 조 전 장관 수사실무를 총괄하는 차장검사급 간부로 심 부장 바로 아래 검사다.

법무부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법무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검찰 감찰 및 징계카드를 들고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 규정 해석이 정량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라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사유가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김보름 기자 fullmoon@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일 오전 서울 송파경로문화센터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이 설을 맞아 할머니들에게 합동 세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지방대 손잡고 지역살리기 나서

교육부 1080억 투자... 올해 시범 지역 3곳 선정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혁신을 이끄는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대학의 활로 개척 사업이다. 대학이 대학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 예산은 총 1080억 원이다. 단일형은 300억 원 안팎, 복수형은 480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30% (단일형 128억 원, 복수형 206억 원)의 대응자금을 투자한다. 올해는 총 3개 지역이 선정된다.

단일형은 1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며, 복수형은 인근 광역시·도 광역시 간 통합 형태로 참여하는 유형이다. 대학은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기본역량진단 미참여 대학만

아니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지역혁신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 지역혁신 주체들이 처음부터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차별화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역혁신 사업은 지역 여건과 현안을 활용해 '지역혁신 핵심분야'를 발굴하고, 대학이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대학은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학사구조 개편, 지역수요와 연계한 혁신 교육과정 개발 등 대학교육 혁신을 통해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지역은 '정보의 공유'와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2월 말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의 역할을 지역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조국 동생 “1억 받았다” 채용비리 일부 인정

허위소송·증거인멸 혐의는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가 첫 공판에서 채용비리 혐의 일부 인정하고, 허위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목에 깁스를 한 채 법정에서 출석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채용비리 관련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며 “(공소장 기재상) 금액은 1억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받은 돈은 1억4000만 원이고, 공범들에게 2000만 원

씩 줬으니 실제로 받은 것은 1억 원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만,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며 “허위소송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특정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해서 고려스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된 후 평생 살아오면서 해온 사업 관련 자료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아는 다른 사건과도 연결되는 게 두려웠다”며 “당시 사무실이 이전할 예정이었고, 필요하지 않은 서류가 워낙 많아서 파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건네며 은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공범인 박모 씨가 도와달라고 해 현

금을 전달해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숨여오라는 취지로 행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다.

조 씨 역시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공범인) 박 씨와 조 씨가 필리핀에 가 있겠다고 돈을 달라고 했다”며 “검찰에 나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까지 했는데 검찰에 출석해 보니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옹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허위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중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월호 발매

COVERSTORY 웰컴 에이징

- PART1. 나이 불의 미학 - 늙음과 늙음, 한 획 차이
- PART2. 나이만큼 아름다워지는 삶 - 나이 불의 품격 '어르신나이어에게 듣는다'
- PART3. 노화의 선물 - 백발이 빛 발하는 나이
- PART4. 나이가 아닌 품격을 엮다 - 스타일 나는 인생
- PART5. 웰에이징 설명서 - 나이 막으면 즐 어때
- PART6. 우리들의 특권 - 화려한 VIP '오달세대'를 위하여!
- PART7. '2019 제1회 KMA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수상자 - 제2의 멋진 인생을 엮다

다불어 숲
하늘 아래 처음 열린 길

귀촌
귀농으로 얻은 경제, 그리고 긍정의 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스스로 만족하게 풀이한 해답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부족한 재주로 나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의 얼굴은 자작도 기대한다.

신라비가 만난 사람

“직원이 주안인 회사를 만들어서 행복하다”
5세 백종규 씨가 통찰한 인생과 경영 해법

“있는 그대로 재미있게 사는 것이 중년의 맛”
백우 홍요섭, 물론 길을 걷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말한다

볼기락이 파범벅 오방난전이 되더라도
출타기 명인 김태근

두어 가이드
중세와 현대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불의 도시 '바쿠'
신과 신화 인간들의 이야기가 풍성한 코카서스 3국의 첫 번째 여행지는 이페르바이잔의 수도 바쿠Baku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첫 여행지가 됐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항산화 성분 가득,
카카오닙스 활용 레시피

프로 골퍼 김용준 칼럼
김용준
돌아오라
돌 왓슨이여

Well Aging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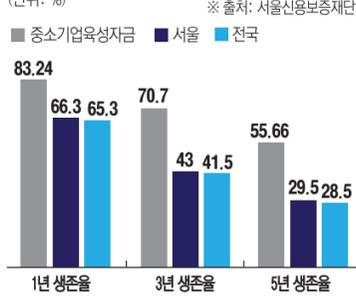
서울시 육성자금 받은 中企 절반 '5년 생존'

생존율 55.7%... 전국 평균 2배
수혜 업체 연 46만원 이자 아껴
서울신보 "올 1조6000억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5년 생존율이 전국 평균보다 두 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 시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장기 용자를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보전해주는 서울시 정책자금이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평균 1조 원 이상, 총 19조 3582억 원이 공급됐다.

20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은 업체의 5년 생존율

서울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업체 생존율 (단위: %)



은 2017년 기준 전국 평균(28.5%) 대비 2배 이상인 55.7%로 나타났다.

연차별 생존율도 1년 차 83.2%, 3년 차 70.7%, 5년 차 55.7%로, 전국 기업 평균(65.3%, 41.5%, 28.5%)보다 각각 약 20%포인트 높았다.

업종별 5년 생존율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분포한 생계형 업종(제조

업,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25%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1년 생존을 대비 5년 생존을 하락률이 33.1%로 서울시 기업 하락률(2017년 기준, 55.5%)과 전국 기업 하락률(2017년 기준, 56.4%)보다 완만했다.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혜 업체는 저금리 자금 연계와 이자 차액 지원 등을 통해 연평균 45만9000원의 금융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업체당 평균 금융비용 경감액은 연간 약 45만9000원으로 기업 규모별로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42만8000원, 117만9000원, 204만4000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2018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업 5년 생존율을 통계청의 2017년 전국 평균 수치와 비교

한 것은 통상적으로 통계청의 집계는 늦기 때문"이라며 "2018년 통계청 조사 결과가 2017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올해 1조60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개발, 자금 종류별 만기구조 다양화 등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탄천변 동측도로 4차선 지하화

기존 제방도로는 산책로 변신

서울시가 강남권 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탄천변 동측 도로를 지하화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탄천변 동측 도로를 송파구 삼성교 교차로~탄천우안도로 연결구간까지 약 4.9km이다.

특히 제방 도로와 제방 하단 도로가 혼재된 복잡한 구조이며 위례신도시,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등 강남권역 대규모 개발로 인해 송파대로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의 연결과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유수지 공간을 이용해 진·출입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통과교통과 생활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주요 구간은 왕복 4차로 지하차도로 조성한다. 또 기존 제방 도로는 산책로 조성 등 친수공간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1구간인 광명교 교차로부터 탄천우안도로 연결구간인 0.6km는 2017년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 기본설계가 검토 중이다. 2구간인 삼성교 교차로부터 광명교 교차로까지 4.3km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중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수립 용역을 이달 중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다. 타당성 조사 통과 시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내년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성동구, 전통시장에 소화기 600대 설치

서울 성동구가 화재 등 재난 사고로부터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성동구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소화기 600대를 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동구는 매년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9곳을 상대로 시설, 전기·가스 등 안전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통시장 구조상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초기 진화를 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성동구는 점검 사업의 후속 조치로 2017년부터 업소 한 곳당 소화기 한 대를 배치하는 소화기 보급사업을 실시 중이다.

성동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에서도 특히 화재에 취약한 곳에 소화기를 설치했다. 공공목적 소화기 중 사용 일자가 초과된 제품도 교체했다.

성동구는 민선 7기 비전인 '스마트 포용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해 9월 금남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성동구

도시'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화재예방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성동구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지난해 9월 지자체 최초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9곳 전체에 설치하기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통시장은 화재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시설 보완과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금천구, 고령자 3014명 일자리 마련

서울 금천구는 31일까지 총 40개 사업에 3014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6개 수행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17일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발대식(4개 사업, 340명)을 시작으로, 20일 대한노인회금천구지회에서 568명(3개 사업)이 참여하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22일 금천노인종합복지관(6개 사업 633명), 29일 금천호암노인복지관(10개 사업, 821명), 30일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4개 사업, 154명), 31일 금천시니어클럽(13개 사업, 498명)이 실시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사업으로 나뉜다.

일자리 유형별로 보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복지시설지킴이 등 '공익형' 26개 사업

2525명, 보육 및 돌봄 시설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2개 사업 91명, 함께그린 카페 등 '시장형' 11개 사업 375명, 수요처 요구에 의해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는 '인력파견형' 1개 사업 23명이다.

금천구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58억여 원을 투입해 어르신 223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지난해에는 85억여 원의 일자리예산으로 2823명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100억여 원으로 3014명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등 보다 많은 예산과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에 참여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화재의 시간

“100만부 신화의 재탄생”

1천만 관객 대종상 수상 영화 <관상>의 작가 백금남이 그려낸 거대한 한 폭의 구도화

소름 통해 인간 본성을 내다보다. 천만 관객 영화 <관상> (명당)의 작가 백금남이 그려낸 거대한 한 폭의 구도화

삼성문학상 수상 베스트셀러

십우도

백금남 장편소설

‘소름 통해 인간 본성을 내다보다’

십우도

백금남 장편소설

한 개인의 정신적 발전 과정을 불교적 관점으로 추적한 역사이다. - 이청준 소설가

제대로 갖추어진 소설로서의 틀과 문장력, 우선 재미있게 끌고 가는 힘이 있다. - 정규용 문학평론가

언어를 잘 꿰어 갈무리한 문체의 특성과 백정의 한과 사무친 실음의 웅여리를 불교적 사유와 순환의 구조 속에서 감동으로 말해 주고 있다. - 김선학 문학평론가·교수

한(恨)이라는 감성적인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백정의 이야기를 도(道)로 승화시킨 점이 아마 가장 훌륭한 점이 될 것이다. - 서정기 문학평론가·교수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 무한

<정지상태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

제로백 4초... 굉음 사라진 야수 'EV 슈퍼카'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트

고성능 전기차 시대

2010년대 들어 국내에서도 완성차 메이커가 속속 양산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했다. "우라도 전기차 만드는 기술이 있다"를 알리기 위한 상징적 모델이었다.

국내 최초의 전기차는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기아산업이 승합차 '베스타'를 바탕으로 한 전기차를 내놓은 게 처음이었다. 당시 아시안게임의 마지막을 장식할 마라톤 경기에 베스타 EV가 등장했다.

◇국내 최초 전기차는 기아산업 베스타 EV = 실용적인 전기차로 이 모델은 국내 최초였다. 다만 주행가능거리가 짧아 마라톤 전체구간인 42.195km를 간신히 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200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 전기차는 이른바 '테스트 베드'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내연기관을 얹은 일반 양산차의 차체를 가져와 전기모터를 달았다.

양산 전기차가 나온 건 2011년 기아차 레이 EV가 시작이었다.

현대·기아차는 조만간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전용 모델을 출시한다. 고성능 전기차 출시도 예고했다.

이제껏 전기차 성능 판단기준은 잘 달리기보다 1회 충전으로 주행가능한 거리였다. 급속충전 시간까지 줄여야 한다는 숙명을 안고 나왔다. 아직 시장이 성장 중인 만큼, 저변 확대가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전기차 급속충전 시간이 크게 줄었고, 1회 충전 때 주행 가능한 거리도 양산차에 버금갈 만큼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업체들도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적인 고성능 여부에 시선을 돌렸다. 이미 글로벌 주요 완성차 메이커들이 속속 고성능 전기차를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전략 가운데 하나다.

◇초반 가속에서 내연기관 앞서는 전기차 =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초반 가속이 빠르다.



국내 첫 전기차 기아산업 베스타 EV

포르쉐 타이칸

포르쉐 첫 고성능 세단 전기차
최고시속 250km '테슬라 맞수'

아우디 e-트론 GT

4도어 쿠페형 세단 출시 임박
600마력 파워에 고속 충전도

BMW i4

1회 완충 시 주행거리 600km
5세대 e드라이브 시스템 적용

내연기관은 '흡입-압축-폭발-배기' 과정을 거쳐 회전축을 돌린다. 연료를 많이 분사하고 흡입량을 늘리면 회전축의 회전 속도도 빨라진다. 이 과정을 거쳐 고회전 영역에 접어들다.

반면 전기차는 스위치를 '온(on)' 하면 곧바로 최대 회전수까지 금방 올라간다. 전기차의 가속력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다.

전기차는 순간적으로 치솟는 회전력 탓에 변속기가 없다.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 역시 이런 전기차의 특성을 십분 살려 속속 고성능 모델을 내놓거나 준비 중이다.

이들은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제로백)까지 2-3초면 충분하다. 내연기관 기준으로 보면 고성능 슈퍼카 수준이다.

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주도 중인, 나아가 조만간 출시표를 던질 글로벌 완성차 회사의 고성능 전기차를 알아보자.

◇전기차 시대 포르쉐를 이끌어 갈 타이칸 = 지난해 하반기 포르쉐가 최초로 전기차 방식 고성능 세단 '타이칸'을 내놨다. 미국의 테슬라를 겨냥한 EV 방식의 스포츠 세단이다.

과급기를 장착할 수 없는 전기차지만 모델별로 스타이칸 4S 스타이칸 터보 스타이칸 터보S 등으로 라인업을 짰다.

기본급인 타이칸 4S 최대 571마력을 내는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를 갖췄다.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도 407km에 달한다.

달리기 성능은 포르쉐답게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0초면 충분하다. 고속에서 불리하다는 전기차의 한계를 넘어서서 최고속도 역시 시속 250km에 달한다.

엔트리급이 이 정도니 워터급인 타이칸 터보와 터보S는 이를 훌쩍 넘어서는 고성능을 발휘한다.

◇포르쉐에 맞서는 아우디의 전기차 전략 = 아우디는 포르쉐의 타이칸과 경쟁할 고성능 전기 세단 'e-트론 GT'를 준비 중이다.

'2018LA오토쇼'에서 첫 콘셉트카가 등장한 이후 양산차는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구성은 포르쉐 타이칸과 마찬가지로 4도어 쿠페형 스포츠 세단을 지향한다.

콘셉트카는 아우디의 미드십 슈퍼카 R8 디자인과 유사하다. 최고출력은 600마력 이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30분 이내 최대 150kW의 수준의 고속 충전도 양산차의 목표치로 삼았다.

◇BMW i시리즈 영토확장 고성능 전기차 i4 = BMW는 순수 전기차 i시리즈에 'i4'를 추가한다. 내년엔 선보일 i4는 4시리즈 그란쿠페 스타일이다.

5세대 e드라이브 시스템을 바탕으로 80kWh급 배터리를 갖춰 1회 충전으로 600km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출력은 523마력을 바탕으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까지 4초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50kW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배터리 80%를 충전하는 데 30여 분이면 충분하다.

김준형 기자 junior@



아우디 e-트론 GT 콘셉트



BMW i4



포르쉐 타이칸

<고성능 전기차 기업>

'리막' 손잡은 현대·기아차... 제네시스 첫 전기차 기대감

지난해 8월 전략적 제휴 체결 내년 양산형 순수 전기차 출시

이제껏 현대·기아자동차는 고성능과 거리가 멀었다.

1990년대 초, 2도어 스포츠 쿠페 '스쿠프'를 내놓았을 때 외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느린 스포츠카"라며 비아냥거렸다.

데뷔 초기에는 실린더마다 흡기밸브를 하나씩 추가한, '4기통 12밸브' 타입의 알파 엔진을 얹었다. 이후 과급기인 '터보'를 추가해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까지 9.7초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산차 가운데 처음으로 10초 벽을 뚫었던 차가 스쿠프였다. 우리 기준으로 차고 넘치는 고성능이었지만 세계 시장에 내놓으며 '스포츠카'를 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2010년 이후 현대·기아차가 점진적으로 스포츠 브랜드를 앞세우기 시작했다. 월드 랠리 챔피언십에 재도전했고, 이제



크로아티아 전기차 기업 '리막'이 개발한 '콘셉트2(C-Two)'는 최고 출력 1888마력(ps)을 바탕으로 제로백까지 1.85초면 충분하다. 내년 중 선보일 예정인 현대차 '제네시스'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에 리막의 기술 일부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고성능 'N 브랜드'도 론칭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자 이제 전기모터를 앞세워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 출시표를 던질 계획이다.

출발점은 지난해 크로아티아 전기차 기업 '리막(Rimac)'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시작했다.

리막은 2009년 창업자 '마테 리막'이



설립한 전기차 회사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고성능 하이퍼 전기차 분야에서 독보적 강자로 자리매김 중이다.

독일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가 전략적 투자를 먼저 단행할 만큼, 고성능 전기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리막은 애스턴마틴과 피닌파리나 등 글로벌 유수의 스포츠카 브랜드와 최고

출력 1000마력을 넘나드는 '하이퍼(Hyper) 하이브리드' 카를 공동개발한 바 있다.

나아가 2016년 리막이 개발한 '콘셉트 1(원)'은 400m 직선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이른바 '드래그레이싱'에서 페라리의 고성능 모델 '라페라리'를 가볍게 추월하며 눈길을 끌었다.

2018년 제네바모터쇼에서 공개된 '콘

셉트2(투)' 역시 최고출력 1888마력(ps)의 가공할 출력을 바탕으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를 단 1.85초 만에 주파하는 데 성공했다. 전 세계 언론은 물론, 자동차 기업들마저 깜짝 놀랐다. 현존 전기차 가운데 가장 빠른 순발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리막이 개발한 콘셉트2(C-Two)는 테슬라가 올해 출시를 공언한 고성능 전기차 '테슬라 로드스터'보다 빠른 순발력을 자랑한다.

리막은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여러 자동차 업체들과 고성능 전기차용 부품 및 제어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현재 고성능 하이퍼 전기차의 모델의 소량 양산 및 판매도 추진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기에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두산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굴삭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지금은 사람을 돕는 기술이지만

미래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뱀캣 소형건설장비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CX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소형건설장비와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개발로 지구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원로, 존경하던 분” “산업 발전의 거인 잃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 세계 추모 발길

이재용 부회장 가장 먼저 조문...몸 불편한 이재현 회장도 신동빈·신동주 형제 1년 3개월 만에 만나 장례절차 조율

대한민국 유통의 역사를 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세에 재계가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했다.

먹거리가 부족하던 시절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과사업에 투신한 후 지원이 부족한 국내 한계를 극복할 카드로 '관광산업'을 내세우며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롯데호텔의 문을 잇달아 연고인은 롯데월드타워의 개장까지 목표로 세웠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영면에 들어갔다.

19일 작고한 신 명예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아산병원에선 첫날부터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신 명예회장 생전에 반목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한 가족 3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2018년 10월 법정에서의 서막한 만남 이후 1년 3개월 만에 만나 장례 절차 등을 조율하는 등 여느 형제와 다름없이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에는 19일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신 명예회장의 부인 시계미즈 하츠코(重光初子) 여사, 넷째 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과 여동생 신정숙 씨, 동생 신준호 농심 회장의 장남 신동원 부회장 등 신 회장 일가 30여 명이 빈소를 지켰다.

재계의 애도 행렬도 이어졌다.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계 총수로는 가장 먼저 조문한 것을 비롯해 이재현 CJ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문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이 잇달아 조문했다.

경총 인사들과 함께 빈소를 찾은 손경식 회장은 “최고의 원로, 존경하던 분”이라며 “이제는 우리에게 전설적인 기업인으로 남았다”며 고인과의 작별을 아쉬워했다.

민영기 롯데제과 대표와 강성현 롯데네슬레 대표 등 계열사 대표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



신동빈(앞줄 오른쪽부터)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회장의 부인 시계미즈 하츠코 여사,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및 일가족이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롯데그룹 신격호 창업주 장례식 초례(장례를 시작하고 고인을 모시는 의식)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그룹



해리 해리스(오른쪽) 주한미국대사와 인사하는 신동빈 회장. 신태현 기자 holjijak@

이었던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대표 등 재계 인사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직원의 부축을 받으면서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길

을 배웅했다. 이 회장은 박근혜 CJ그룹 부회장, 김흥기 CJ주식회사 대표,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허민회 CJ ENM 대표 등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조문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거인을 잃게 돼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유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장례위원장인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는 취재진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생전의 고인의 업적에 대해 설명했다. 황 대표는 신 명예회장의 발자취를 열거하며 “신의를 중시하고 도전과 열정을 강조하고 실천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한 번 맺은 인

연을 소중히 하며 롯데 사업 초기 거래처들과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모두가 실패를 예상한 롯데월드와 롯데월드타워에 도전한 신 명예회장의 삶이 고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신 명예회장의 장례는 그룹장으로 진행되며 이흥구 전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명예장례위원장을 맡는다. 장례위원장은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송용덕 롯데지주 대표이사다. 발인은 22일 오전 6시이며 발인 후 22일 오전 7시 서울 롯데월드몰 8층 롯데콘서트홀에서 영결식이 열린다.

박미선 기자 only@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靑 균형인사비서관 김미경 재정기획관에 조영철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균형인사비서관에 김미경<왼쪽 사진> 전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재정기획관에 조영철<오른쪽>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사회경제적비서관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기후환경비서관에 김재남 제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비서관에 김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위원을 임명했다.

김미경 비서관은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조 전 장관이 사퇴하자 함께 물러났다. 재정기획관에 임명된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국회사무처 예산분석관,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등을 지냈다. 정일환 기자 whan@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원장 선임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제2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배 원장은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의약품정책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외교부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지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2년까지 3년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한국서 첫 설 명절 맞는 알 카타니 에스오일 CEO 교회 노숙자 무료급식센터서 ‘떡국 나누기’ 봉사

에스오일(S-OIL)이 20일 서울 영등포 광야교회 노숙자 무료 급식센터에서 ‘설날 맞이 사랑의 떡국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후세인 알 카타니<사진 왼쪽 두 번째>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퇴직임원 등 100여 명이 쪽방촌 거주 독거노인, 장애인, 주변 지역 노숙자들에게 떡국을 대접한 이후 떡, 쇠고기, 굴, 라면 등 식료품을 포장한 선물 꾸러미를 영등포 역 일대 쪽방촌 500여 가구에 전달했다.

한미글로벌, 베트남서 장애인 가옥 개보수 완공식

한미글로벌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사회공헌활동 ‘2019 베트남 공간복지 2차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완공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는 베트남 현지 하이증성 남삭현 타이면에서 진행됐다. 베트남 하이증성에 거주하는 장애인 5개 가구의 가옥을 개보수하고 이를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사

◆국회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정덕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손숙자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손은춘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정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철민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충연 △국회사무처 김남영 △국회사무처 김상범 △국회사무처 이상묵 △국회사무처 제민 △국회사무처 조은희 ◇부이사관 전보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재문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박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영복 △법제실 정부환경법제과장 정승환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장 조승래 △국제국회의회교정책임서관 정연수 △국제국회의회교총괄과장 이운국 △국회운영위원회

를 포함한 선물 꾸러미를 영등포 역 일대 쪽방촌 500여 가구에 전달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설 명절을 맞이한 알 카타니 CEO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분위기여서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때”라면서 “에스오일과 임직원들이 이곳에서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떡국 나눔으로 주민들이 설날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재국<사진 뒷줄> 한미글로벌 베트남법인 상무를 비롯해 하이증성 외교국 관계자, 하이증성 남삭현 및 타이면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미글로벌은 따뜻한동행과 2010년부터 국내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당사자 중심의 최적화된 주거 및 생활 환경으로 개선하는

입법조사관 박병섭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충섭 △국회사무처 양성선 △국회사무처 성소미 △국회사무처 이세진 △국회사무처 이은정 △국회사무처 주성훈 △국회사무처 최기도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중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옥순 △국회사무처 유인규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정석배 ◇부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김경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장 공준택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임재금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장 이동훈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장 신은호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장 김태규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장 윤상열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승진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



에스오일은 2007년부터 14년째 매년 설날마다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쪽방촌 주민과 노숙자들을 위한 ‘사랑의 떡국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공간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베트남, 에티오피아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옥을 대상으로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동팀장 김대은 ◇부이사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 이재운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장 장영환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장 김태영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장 마을순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정책과장 조영란 ◇부이사관 전보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이진경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김무동 △국회도서관 김준임 △국회도서관 이미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재분석연구부장 원종환 △환경분석연구부장 정성욱 △기획부장 이훈현 △정책성과부장 허양훈 ◇하이투자증권 ◇부사장 신규 보임 △금융상품법안1팀장 오윤식 ◇한국기자협회 ◇승진 △대의협력국장 이원희 △기획국장 김동기

한국타이어·R마드리드 파트너십 연장



한국타이어 구주본부장인 이상훈(왼쪽) 전무와 스페인의 명문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의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17일(현지시간)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십 계약 조인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마케팅 파트너십을 2022-2023 시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음

▲최연자 씨 별세, 김성수(강릉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진수(서울시보라매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씨 모친상 = 20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4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30분, 02-2072-2016
▲김남수 씨 별세, 우성훈(청구고등학교 교장)·무영(기아자동차 영봉대리점 대표)·성목(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교수)·성규(대명GEC 팀장) 씨 모친상, 김창규(전 안동병원 과장) 씨 장모상 = 20일, 대구 모래야장례예식장 103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053-801-9999
▲이종금 씨 별세, 오재환(한국예탁결제원 부산업무부 수석업무역) 씨 모친상 = 20일, 충남 아산충무병원 국화원 특실, 발인 22일 오전 7시, 041-541-4448
▲황두진 씨 별세, 황병덕·병률·병국(연합인포맥스 정책금융부장) 씨 부친상, 장명한·이명관·임민식 씨 장인상 = 20일, 경북 안동시 안동전통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22일 오전 8시, 054-821-0101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에 고사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풀뿌리 경제의 주인공이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성장이 되려면 그 혜택이 소상공인들과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혁신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경제주체는 소상공인이다. 혁신성장 하면 청년창업, 스타트업, 벤처, 유니콘, 스마트팩토리 등이 강조된다. 소상공인과 관련되는 주제는 하나도 없다.

부하거나 임금인상을 거부하는 자본가로 몰아붙이는 것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매도다.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심지어 "전통시장이 죽는다고 대형할인점을 없애느냐"며 "기존 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직접적으로 결합하거나 대체하는 혁신 사업자의 등장은 치명적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친다. 혁신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급속도로 소상공인의 매출을 빨아들여 타격을 준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소상공인을 착취하고 소상공인의 부를 이전하며 성장하지는 것과 같다. 과연 이런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발언대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해마다 일터에서 1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 이를 통해 위험요인을 즉시 시정하는 한편, 시정하지 않는 불량 사업장은 조속히 감독해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부문에서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2018년보다 116명이 감소했다.

안내해 자율 개선을 유도한 후 불시감독을 통해 감독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에도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조업에서 '끼임'을 집중 점검하고, '(가칭)끼임 위험감독' 분야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산재예방 주체도 기존의 사업주에서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됐다. 또한 산업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크리스티앙 디오르 명인 "모든 아름다움의 비밀은 열정이다. 열정 없이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있을 수 없다."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긴 플레어스커트를 '뉴룩'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제1회 컬렉션에서 제1급 디자이너로 인정받았고, 그의 룩스커트가 큰 인기를 끌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청년인재 영입', '청년조직 개편' 등으로 청년층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여야 모두 청년과의 소통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성 정치권의 '소비'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단순히 '젊음'만이 청년일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식의 '꼰대'적 관점은 이미 구시대적 발상이 된 지 오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체육계 미투 1호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와 탈북인권 운동가 지성호 씨, 극지탐험가 남용호 씨 등도 '미담'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

에서도 가치를 잃지 않고 지켜온 인물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청년기본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당 없이 '반쪽' 처리됐다. 청년기본법안은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1호 법안'이다.

이제 원·하청은 사업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원청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원·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제 원·하청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양치질 '양지(楊枝)질'이 변한말. 버들가지(양지)를 이쑤시개로 사용한 데서 생겨났다. ☆ 유머 / 졸부의 아내 자랑 '졸부가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 엄청난 돈을 들여 온갖 귀금속과 비싼 옷, 장식물로 꾸며 주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아내를 자랑했다. '제 집사람 정말 예쁘죠? 제 집사람에게 안 어울리는 것이 있나 어디 찾아볼래요?'

기자수첩



김하니 정치경제부/honey@

단순히 '젊음'만이 청년일까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대표전화, 팩스, 광고문의, 구독·배달, 구독료.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

“최근 기억 중 미국 대사에 대한 가장 기괴한 비판일 것이다.(CNN)”

논란의 주인공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해 호의적이든 비판적이든 간에 그의 콧수염을 둘러싼 논란은 누가 봐도 기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가. 지난 주말 사이 해외 언론에서는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16일에 해리스 대사가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신의 콧수염 논란을 하소연한 까닭이다.

그는 기자들에게 “내 수염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서 일종의 매혹 요소가 된 것 같다”며 “내 인종적 배경, 특히 내가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언론,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비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 대사는 일본계 어머니와 주일 미군이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7월 한국에 미국 대사로 부임했다. 그는 군에 있을 때는 수염을 기르지 않다가 갑자기 수염을 기른 계기에 대해, “외교관의 길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사실, 서양 사람이 수염을 기르는 건 그다지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얼마 전 영국 왕실에서 독립을 선언한 해리 왕자도 덩수룩하게 수염을 길렀다. 재작년에는 미국 남성들 사이에 수염이 유행하면서 면도기 브랜드 질레트가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었다.

다만 해리스 대사를 둘러싼 콧수염 논

데스크칼럼

배수경
국제경제부장



란의 본질은 단순한 콧수염 얘기가 아니다. 해리스 대사는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

그가 부임하고 나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관계는 꼬일 대로 꼬였다. 한일 관계는 일제 강점기 징용공 판결 문제 여파로 악화 일로에 있고, 미국 정부는 연일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해리스 대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파기 결정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미국과 일본 피를 모두 가진 해리스 대사에게로 반미와 반일 감정의 화살이 향했다.

그 화살이 엉뚱하게도 인신공격으로 이어졌는데, 하필 콧수염이다. 콧수염을 기른 그의 외모가 도조 히데기와 아라키 사다오, 하타 슌로쿠 등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을 짓밟았던 일본 군인들을 닮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일제에 저항한 한국의 독립운동가 중 안중근 의사와 안창호 선생도 콧수염을 길렀다”고 했다. 그의 말도 틀린 건 아니다. 그 당시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모양의 콧

수염이 유행했던 것 같다.

외신들은 해리스 대사의 출생 배경과 한일 과거사 등을 예로 들며,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을 이해한다는 뉘앙스로 보도했지만, 일각에서는 인종차별주의로 치부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CNN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를 인용, “한국은 미국 같은 인종의 다양성이 없는 균질적인 사회다. 다른 인종으로 이뤄진 가정이 드물고, 외국인 혐오 감정은 놀랄 만큼 일반적”이라고. 그러면서 CNN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인종차별적인 분위기와 무리한 주한 미군 주둔 비용 협상으로 한미 동맹의 미래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해리스 대사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을 외신 기자들에게 떠벌려 논란을 키운 점도 없잖아 있다. 이는 2017년 1월,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마크 리퍼트 전 대사와 사뭇 대조된다. 2015년 갑작스럽게 피습을 당해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그는 한국인을 비난하기는커녕 “같이 갑시다”라는 말로 한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었다. 고별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동맹은 역사상 최고의 상태이고, 앞으로도 관계를 강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며 아쉬워했다.

아무췌록 이번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나길 바라는 바다. 콧수염 문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한다는 둥 그런 침소봉대는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 sue6870@

사설

세계 마지막 창업세대 퇴장, 기업가정신도 쇠락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19일 향년 99세로 타계했다. 이로써 삼성과 현대, LG, SK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일구고 경제개발을 이끈 이병철·정주영·구인회·최종현 회장 등에 이어, 신 회장을 마지막으로 세계 창업 1세대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했다. 또 다른 창업세대였던 김우중 전 대우 회장도 작년 별세했다.

고인은 대표적 자수성가 기업인으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식품·유통·관광·석유화학·건설 분야에 걸친 거대 그룹을 키워낸 신화적 경영자였다. 1921년 경남 울산에서 태어난 그는 일제 강점기이던 1942년 단돈 83원을 들고 홀로 일본에 건너갔다. 신문과 우유 배달 등으로 고학 생활을 하면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1948년 일본 롯데를 설립해 껌과 화장품, 비누 사업을 벌였다.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롯데는 한일 수교 이후 모국에 진출한다. 일본에서 번 돈을 들여와 1967년 한국에 자본금 3000만 원으로 롯데제과를 설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지금 90여 개 계열사. 자산규모 115조 원, 매출 90조 원의 국내 5위 그룹으로 올라섰다.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일본서 번 돈을 한국으로 빼돌린다”는 일본 측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고인의 말년은 시련이었다. 2015년 두 아들인 신동주·동빈 형제간 후계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고

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논란을 빚으면서 위기를 맞았다. 자신은 배임 등의 혐의로 3년 실형까지 선고받을 뻔했다. 그러나 그가 일본의 귀화 권유도 뿌리치고 ‘기업보국’(企業報國)의 가치를 내세워 산업 불모지였던 모국에 선구적 투자로 경제부흥에 기여한 공헌까지 폄하될 수는 없다. 신 회장은 “한국 롯데에서 얻은 이익은 반드시 한국에 재투자한다”는 원칙을 항상 강조했다.

그는 또 일생동안 열정과 창의적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보여주고 실천했다. 특히 관광산업에 대한 집념이 유난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특별한 돈을 들이지 않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지론에서 롯데호텔과 면세점, 롯데월드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관광산업 발전에 진력했다. 2017년 완공시킨 123층 롯데월드타워는 그가 거둔 마지막 결실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후퇴하고 있는데도 반(反)기업 정서가 팽배하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정책만 쏟아지는 현실이다. 국내 기업들마저 한국의 환경에서는 더 이상 사업하기 힘들다며 계속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 경제를 이만큼 키운 주역이었던 창업세대가 막을 내린 지금, 쇠락하고 있는 기업가정신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그들의 기업가정신을 되살리지 못하면 경제 재도약도 기대하기 어렵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빈다.

유현희의 뉴스 카트



유통바이오부 부장대우

미투 브랜드와 표절의 차이(?)

립이었다. 스몰비어의 원조 봉구비어가 수많은 미투 브랜드로 상표권 분쟁을 겪었고 2000년대 중반 호프전문점 사상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했던 쪼끼쪼끼도 결국 미투 브랜드의 난립과 부실 경영이 겹치며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설빙은 중국 진출 후 짝퉁 브랜드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국내에서 100개 이상 매장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본부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미투 브랜드다. 삼양식품을 수출 기업 반열에 올린 ‘불닭 시리즈’의 원조격인 불닭전문점의 퇴출에서도 미투 브랜드의 폐해를 엿볼 수 있다. 2000년대 초중반 불닭 메뉴를 앞세운 프랜차이즈가 다수 등장했지만 브랜드 난립으로 어느 한 곳도 살아남지 못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그 많던 불닭집이 왜 사라졌을까”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메뉴 개발 없이 카피해서 만든 브랜드가 난립하면 결국 원조의 신뢰성마저 무너진다.

미투 브랜드의 난립과 공멸은 비단 가맹본부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수많은 가맹점주들에게까지 도미노 피해가 이어진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주최로 ‘가맹사업 미투 브랜드 난립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대표적이다. 미투 브랜드 난립 방지라는 프랜차이즈 본부에 꼭 필요한 주제를 다뤘다는 점만으로도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 그러나 아쉬움은 남는다. 근절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이 모여 내놓은 방안은 ‘1+1법’이다. 가맹본부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그렇다면 기존 브랜드의 콘셉트를 그대로 적용한 미투 브랜드라 할지라도 직영점을 1년 이상 유지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미투 브랜드 근절이라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발상이다.

선거철마다 끊이지 않는 논란 중 하나가 논문 표절이다. 논문 표절로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국무위원 임명이 좌절되기도 한다. 미투 브랜드에 ‘1+1’을 준수하라는 것과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국무위원에게 임명 후 1년간 유예기간을 주자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yhh1209@

건강 100세 ‘연골연화증’의 줄기세포 치료법

설산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겨울이다. 하얗게 눈이 쌓인 산 정상에 올라보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말끔히 해소될 만큼 멋진 자연경관이 아래에 펼쳐진다. 그러나 무리한 산행 후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산악인이 적지 않다. 특히 ‘연골연화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연골연화증은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흔한 질환 중 하나이다. 탄탄한 연골이 지속적인 충격으로 ‘물렁해지’는 질환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보통 등산과 같은 무릎에 하중을 주는 운동을 자주 하거나 갑자기 체중이 증가한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하곤 한다.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감소해 증상을 방치하게 되는 연골연화증은 ‘물렁’해진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며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운동을 통해 증상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보다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X-레이 검사와

전문의의 문진과 촉진 등 이학적 검사가 진행된다. 정확한 감별이 필요할 경우 MRI 촬영과 관절내시경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 관절내시경의 경우 정밀한 진단뿐 아니라 치료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최근엔 ‘줄기세포 재생의학’이 날로 발전하며 연골연화증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치료법도 선보이고 있다. 줄기세포 내에는 연골세포를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는 ‘TGF-β (티지엠프-베타)’ 성장인자를 포함한 항염증 성장인자가 존재한다. 이를 연골연화증 치료에 적용하면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 연골연화증은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주사치료 혹은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회복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로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연골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근본적인 치료와 더불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중이 늘지 않게 주의하며,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높이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이 숨결 하나에
먼지 한톨 섞이지 않기를
이 여린 피부에
조금의 더러움도 닿지 않기를

100% 손면
무형광 원단
아기옷 전용 세제
아기옷 전용 유연제

소중한 아기옷에
아무 건조기나 쓸 순 없었으니까

더 건강한 삶을 위해
건조기는 그 무엇보다 깨끗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건조기 콘덴서** 를 확인해보세요

“그랜드의 양방향 도어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설치, 사용하세요”



자연의 좋은 건조

삼성 건조기 그 랑 데